

..... 제 6 차 .....

# 2002정기총회자료집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4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실 국제회의실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제 6 차 .....

# 2002 정기총회자료집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4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실 국제회의실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목 차

|             |   |
|-------------|---|
| 총회 순서 ..... | 5 |
| 계회사 .....   | 7 |

## 2001년도 사업보고

|                       |    |
|-----------------------|----|
| 전체사업 보고 .....         | 9  |
| 사무처 보고 .....          | 16 |
| 각 위원회와 연구원 사업보고 ..... | 23 |
| 특별사업(연대사업) 보고 .....   | 69 |

## 2002년도 사업계획

|                     |     |
|---------------------|-----|
| 사업방향(안) .....       | 93  |
|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 | 97  |
| 월별 사업계획(안) .....    | 108 |

|              |     |
|--------------|-----|
| 정관 개정안 ..... | 109 |
|--------------|-----|

|             |     |
|-------------|-----|
| 운영 규정 ..... | 115 |
|-------------|-----|

|             |     |
|-------------|-----|
| 글 모 음 ..... | 118 |
|-------------|-----|

|              |     |
|--------------|-----|
| 보도기사모음 ..... | 167 |
|--------------|-----|



# 정기총회 순서

## 여는마당

영상을 감상 : For You, Not me!

여성평화,통일운동 '하나+하나' : 최안진경(민언련 격원기자)

강의 : 2002 정세와 평화운동의 길 : 임글출(한겨레21 북한전문기자)

영화의 몸짓 : 영화를만드는 소망과 거름: 박수선(갈등해결팀장)

영화노래배우기

## 정기총회

시작하여 : 평화영상

인사말씀 : 이우정 본 회 이사장

성수보고

개회선언 및 제회사

회순채택

전 회의록 낭독

2001년도 사업보고

-사무처

-각 위원회와 연구원

감사보고

2001년도 회계결산보고

임원 보선/ 공천위 보고

보선위원회 인사

2002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사무처

-각 위원회

2002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장관 개결

기타도의

감사회 전달

모범회원 시상

회의록 발문

폐회선언

평화영상팀

의장 : 이길현숙 상임대표

서기

의장

의장

서기

사무국장 : 전은주

각 위원장(김경수,홍승화,

김숙영,서미숙,장경란,장현백)

감사 : 이문우

회계 : 노길원

공천위원장

의장

의장

사무국장

각 위원장

의장

의장

의장

메시지/공동대표

의장

서기

의장

작은 바자화와 먹거리 나눔... 그리고 평화먹당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새해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맞아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더욱이 반갑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분주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함께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화두들이 마냥 낯설기만 한 이 땅에서

반세기 넘게 누적된 우리 안의 적대감을 벗어나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보겠다는 꿈을 앞세우고 모인 여성들이

너무 소중한 탓일 것입니다.

그 동안 분주하기 그지없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특별히 평화와 통일과제를 위해

여러 형태로 헌신해주신 평화여성회 가족 여러분, 이사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여성의 힘으로'라는 사업목표아래

여성주의적 통일정책제안, 통일교육모델개발, 전국통일순회강연, 평화아카데미교  
육 등 쉬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대활동 속에서 평양 남북여성통일토론회(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를 주도  
해왔으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모델도 선도적으로 개발해왔습니  
다.

어린이 통일인형극을 제작하여

전국어린이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하는 새로운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명상팀을 꾸려 개인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용의 정신을 아우르는 시도도 시작했습니다.

세계 테러전쟁 국면을 맞아서

평화촉진날리기 사이버캠페인을 벌여

대중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대사업에서 여성평화지도력도 한껏 발휘한 한해였습니다.

통일교육협의회 창립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년공동행사에서,

MD저지와 평화군축공동대책활동에서, 반전연대활동에서, 연화협 여성위원회 활  
동에서 평화여성회는 헌신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2002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남북화해의 길은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북일관계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MD 배치계획을 진행시킴으로써 세계의 무기경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테러국면을 이용해 군국주의 강화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는 빈곤의 그늘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서의 변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크게 제약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선거국면과 세계적인 스포츠행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질서변동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대응이

악화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 보입니다.

2002년 우리의 평화만들기는

이런 제약적 조건들과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전쟁환경을 화해지향적, 공존지향적인, 평화문화환경으로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여성들의 지혜와 평화능력을 모아내고,

세계여성들과의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여성회 자매 여러분!

민족의 안전과 화해를 위해

그리고 남북여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002년에도 변함없이

평화열정을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25일

공동대표 이길현숙, 정현덕, 김숙임

## 2001년도 사업 보고

----- 전체사업 및 사무처 보고

----- 각 위원회 사업보고

----- 특별(연대)사업보고



# 1. 전체사업보고

## 사업목표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여성의 힘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통일에 대한 사고방식도 상당히 다원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회는 여성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화해와 공존의식 확산과 대중적인 평화의식 고취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와 여성세력의 주류화에 기여한다.

## 주요사업

### 1. 평화·통일 의제 개발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 행동 전개

#### (1) 사업계획

- 1) 평화·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을 전개
- 2) 평화·통일운동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입장을 제시
- 3) 군축 활동
  - ①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 대한 의정감시 활동
  - ②기타 제반 군축 의제 개발 및 연대 활동
- 4) 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 미역, 입산모용 영양제 등을 북한에 보내기
- 5) 국내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성
  - ①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평화통일포럼의 정착
  - ②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련해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정보공유 네트워크구축
  - ③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 활동
- 6) 평화·통일 관련 국제평화네트워크 구축

## (2) 실천내용

### 가. 의제개발 및 정책 제시 활동

- 1) 제4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무시정권의 대한민국과 남북관계”
- 2) 제5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독일 통일과 여성”
- 3) 통일부 연구용역 “국내의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 연구
- 4) 평화·통일 여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2002 국제정세와 한반도운명, 여성”
- 5) 정병제관련 대안모색
  - ①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와 대안모색 워크샵
  - ②정병제관련 대체복무제도 시행 현장(대안) 방문

### 나.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행동 전개

- 1) 평화촉진날리기 사이버캠페인
- 2)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 ①여성평화원목시위
  - ②전쟁반대 여성평화시위
  - ③전쟁반대 평화실현 공개토론회
  - ④전쟁반대 평화실현 1인 릴레이시위
- 3) 북한어린이와 임산모 돕기 사업
- 4)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
  - ①김정일국방위원장 담방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
  - ②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
  - ③8.15통일대축전 남북여성 간담회
- 5) 반전평화연대활동
  - ①한국 553개 단체 미국의 전쟁보복과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공동성명 발표
  - ②시민사회 대토론회 -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 ③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 ④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 ⑤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 ⑥평화학자 요한 갈통 교수 초청강연

- 6) MD저지와 평화군축 공동대책위 활동
  - ①목히드마틴사, 보잉사 앞 1인 시위
  - ②MD저지 공동위 1, 2차 워크샵
  - ③MD 강요! 무기 강대! 과월 미 국무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 ④과월 방한 규탄 투쟁
  - ⑤MD문제 토론회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 ⑥MD 반대 국제 행동의 날 집회
- 7) 미군축전문가 '렌달 캐롤라인 포스버그와'의 간담회
- 8) 국방장관과의 간담회 및 국방부의 NGO단체 대표의 안보현장 방문프로그램
  - ①국방장관과의 간담회
  - ②안보현장(전방 부대) 방문
- 9) 9.11 테러 사태 이후 평화여성회의 반전활동에 관한 국제연대
- 10) 통일교육협의회 활동(여성분과 간사단체 활동, 여성단체와의 통일교육 연대)
  - ①통일교육협의회 의장단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 ②통일교육 여성활동가 워크샵

## 2.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 기반 조성

### (1) 사업계획

- 1) 평화·통일교육을 비롯한 대중프로그램: 평화의식 확산을 위한 대중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의 삶에 연결시키는 평화운동을 전개
  - ①여성평화아카데미
  - ②여성통일아카데미
  - ③대중프로그램으로서의 "갈등해결과 관용 훈련" 모색
  - ④반평화 지역 평화기행
  - ⑤8.15 여성통일한마당
  - ⑥평화·통일교육 강사뱅크
- 2)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회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①홈페이지 활성화
  - ②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통일운동
- 3)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확산



①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

②북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에 관한 교육

## (2) 실천내용

1) 어린이 통일인형극과 여성통일강좌

2) 사이버 평화축제 - 공모전, 평화통일길라잡이

3) 여성평화아카데미 2001 봄, 가을강좌

4)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프로그램

①교재 개발 2차 워크샵

②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수요식

③교사들을 위한 갈등해결프로그램

5) 평화명상팀

6) 외부 평화와 통일교육 강의 지원

## 3. 조직 강화 및 재정자립화 사업

### (1) 사업계획

1) 회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①회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원 소모임 개발

②소식지를 통해 회원의 참여를 높이고 회원 망을 강화

③사이버를 통한 회원의 의사소통구조 활성화

④회원수련회 전개

⑤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재정 사업 강화

①재정위원, 후원회원, 이사 확보와 강화

②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카페와 기타 수익사업

3) 조직정비

①사무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진행

②위원회 강화

③연대활동의 체계적 배치

## (2) 실천내용

### 가. 조직강화사업

- 1) 회원캠프
- 2) 소식지 발행(봄호, 여름호, 가을호 발행)
- 3) 평화명상모임
- 4)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크 기반 조성

### 나. 재장자립화 사업

- 1)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자매
- 2) 평화친구만들기 및 CMS 사업을 통한 회원 확대캠페인

## 사업평가

### 1) 성과

가. 평화,통일 의제개발 및 정책 제시 활동과 연구활동의 성과

- 여성평화통일포럼과 전문가포럼, 평화교육 연구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포럼은 본 회 의제개발 및 정책제시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참석인원 또한 5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면서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
- 국내외 평화교육사례의 통일교육적용방안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평화교육 전문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여낼 수 있었으며 본 회가 평화교육의 개척자로서 인정을 받음.

나.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행동의 모범적 전개

- '평화꼭지날리기' 사이버캠페인을 통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방식을 개척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여성단체의 반전평화 행동을 적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들이 실천으로 북한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고, 8.15 남북여성 토론회 등 남북여성교류의 물꼬

를 드는데 본 회(대표를 중심으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이 외 9.11테러 이후 10.7아프간전쟁 과정에서 반전평화운동의 불을 지켰고, 반전평화공동실천, MD대혁위 등의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사회여론을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대중문화, 대중교육 사업의 안정화 및 대중적 기반 구축

- 통일인형극과 사이버 사업 등 대중프로그램의 기획으로 대중화와 저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 여성평화아카데미 사업은 3년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연대단체별 평화의식확산 및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교육사업의 정형이 마련되었다.
- 또한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프로그램은 전문교육으로 육성된 사업팀이 구성되면서 학교교사 워크샵, 매뉴얼 개발연구 등 활동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 평화운동의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두드러졌던 영역은 평화명상팀의 활동으로 평화심성개발훈련을 통한 일상에서의 평화문화 확산을 시도하는 본보기 사업이었다.

라. 평화카페의 성과와 조직사업의 기반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

- 재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사업이었던 평화카페에서 재정부원들과 대표단을 비롯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정부에 상당한 성과를 내었으며 본 회의 인지도 또한 높아졌다.
- 회원캠프를 열어 회원화합과 결속력을 높이고, 회원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 또한 소식지의 안정적 발행과 평화명상모임의 지속적인 운영, 이메일을 통한 회원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회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성과를 보았다.

## 2) 과제

가. 반전평화운동 등 사회행동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템 개발 구상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주동적인 대처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실천활동이 구체적으로 구상되어야하며 그동안 모범적으로 전개한 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후속작업으로 더욱 발전된 사회행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모색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평화와 통일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논의된 정책이 대중 속에 반영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과 실천가그룹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대중기획사업의 내실화로 평화문화확산에 기여

어린이 통일인형극과 여성통일강좌, 사이버공모전 등 대중사업을 성과있게 진행 하고, 치밀한 준비과정과 참신한 내용으로 대중친화적인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과정에서 깊은 층 회원확보에 주력하여 활동가 인력을 배출하는 실천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라. 교육, 연구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가 인력을 확대

전문성 강화와 교육아이템 개발의 기초토대가 될 수 있는 평화아카데미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커리큘럼 개발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평화교육매뉴얼 개발 및 여성평화운동의 전망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평화, 통일 전문가 여성인력풀 형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마. 재정자립화, 조직강화에 주력

- 재정기반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가 모색되어야 하고, 외부지원금에 대한 의존율이 낮추고 회비납부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회원사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

-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업기획으로 CMS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대중사업팀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각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 II. 사무처 보고

|           |                                                                                                                                        |
|-----------|----------------------------------------------------------------------------------------------------------------------------------------|
| 1.1-4.30  |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 돌기 캠페인                                                                                                                     |
| 1.8-1.9   | 한국여성단체연합 15차 정기총회 참석                                                                                                                   |
| 1.16      | 제5차 이사회                                                                                                                                |
| 1.26      | 대안적인 징집제도 워크샵 준비 모임                                                                                                                    |
| 1.30      | 제5차 정기 총회                                                                                                                              |
| 2.5-2.8   | 강동해전 프로그램 전문가 훈련 교재 개발 1차 워크샵 참석(정경란, 박수선)                                                                                             |
| 2.8       | SOFA개정 국민행동본부 “SOFA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2.<여성과 어린이 인권> (발표 : 이길현숙)                                                          |
| 2.12      | EBS 남북은 하나 부제 통일과 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함께: 이길현숙, 노길림 방송 출연<br>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준비모임                                              |
| 2.14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                                                                                                                     |
| 2.19      | 통일교육협회 임시총회와 회원단체 1차 워크샵<br>-본 회 여성분과위원회 간사단체로 선정, 이길현숙 대표 상임의장으로 선출                                                                   |
| 2.20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청산교육장                                                                                                                     |
| 2.22      |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발제: 정현백 발제)                                                                           |
| 2.28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행사                                                                                                                      |
| 3.4       | 3.8 여성대회 참가 이벤트홀                                                                                                                       |
| 3.5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 (이길현숙 참석)<br>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br>“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토론: 정현백) |
| 3.9       | 여성평화의 집 감사                                                                                                                             |
| 3.10      |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                                                                                                                            |
| 3.14      | 통일부 장관 면담: 3월 14일 오후 3시 (이길현숙, 정현백)                                                                                                    |
| 3.15      | 한국여성단체연합 통령위                                                                                                                           |
| 3.17-3.18 |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홍원연수원                                                                                                      |

|           |                                                                                                   |
|-----------|---------------------------------------------------------------------------------------------------|
| 3.19      | 소과제협상 요구 미대사관 앞 이김현숙대표 1인시위 진행                                                                    |
| 3.20-현재   | MD(미사일방어체계)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체위 연대<br>평화포럼 오찬모임<br>청와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이김현숙) 간담회                             |
| 3.21      | 여성부장관 면담 (이김현숙, 정현택 참석)                                                                           |
| 3.22      | 제4회 여성평화통일포럼<br>“급변하는 한반도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응”                                                           |
| 3.26-4.1  | 국제화해친우회(IFOR) 대륙간 협의회 회의 정경만 참가                                                                   |
| 3.31      | 평화를 만드는 여성 발행 (소식지 통권 제12호)                                                                       |
| 4.4       | NMD/TMD 공대위 회의                                                                                    |
| 4.6       | 2001 국방 NGO 포럼 (토론자- 김숙임)                                                                         |
| 4.12      | 경기도여성지도자모임 평화교육 강의 (정현택)                                                                          |
| 4.14      |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와<br>공동주최)                                                      |
| 4.18      | 남북여성교류 정책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                                                                             |
| 4.19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회의                                                                                   |
| 4.20      |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한 실무회담(금강산)모임 (정현택)                                                               |
| 4.25      | 오사까부 의회의원 야마나카 기요코 본회 방문                                                                          |
| 4.25-5.16 | 2001년 여성평화아카데미 봄 강좌, 남북여성민우회 공동주최                                                                 |
| 4.27      |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전문가 학습                                                                                 |
| 4.28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작은 나눔이 평화의 작은<br>기입니다”                                                |
| 5.7       | 평화포럼 주최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기자회견’ (참<br>석: 이김현숙, 이우정, 박청수)                                         |
| 5.8-5.10  |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
| 5.11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회의                                                                             |
| 5.12      |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부 전문가 학습                                                                  |
| 5.17      | 이학회 평화교육 강의(이김현숙)                                                                                 |
| 5.17-5.18 | 국경홍보처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학습                                                                              |
| 5.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여성과 평화’통일문제토론회<br>(토론자-이김현숙, 발표자-정현택)<br>NMD/TMD 반대, 여의도 록히드마틴사 앞 1인 시위(이김현숙) |
| 5.23      | NMD/TMD 공대위 회의                                                                                    |
| 5.24      | 5.24평화군속 세계여성들의 날 기념캠페인<br>“NMD TMD 저지와 평화실현 여성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연                                      |

|           |                                                                              |
|-----------|------------------------------------------------------------------------------|
|           | 합, 한국여성외교화연합, 새세상을여는 원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성민주회, 여성사회교육원 공동주최/ NMD-TMD저지 평화 실현 공동위 후원 |
| 5.24-6.7  | 갈등해소 전문가 훈련, 미국연수(정경란, 박수선 참석)                                               |
| 5.31      | 양심종교자유, 군대제 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                                                     |
| 6.1-10.31 | 사이버평화촉제 - 사이버공모전, 사이버평화통일교육 실시                                               |
| 6.1-10.1  | 통일부 연구용역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 방안” 연구(정현택, 김정수, 김열리)                       |
| 6.14-6.16 |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기념 금강산 대토론회”(김숙임, 윤명선, 김귀옥 참석)                                |
| 6.15      | MD관련 동아리평화포럼(전은주 참석)                                                         |
| 6.18      | 모성보호법 개정 촉구 여의도 집회                                                           |
| 6.20      | 한국여성단체연합 통령위 위상 “한반도 주변정세와 여성운동의 대응 토론회” 참석                                  |
| 6.23      | 갈등해소 프로그램 전문가 훈련 교재 개발 2차 워크숍 참석                                             |
| 6.26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 6월 선언’ 동참                                            |
| 6.27      | 정대협 465차 정기 수요시위(한국여성신학협의회와 공동주관)                                            |
| 6.29      | 미 군축전문가 행당 캐틀라인 포스터버그 간담회                                                    |
| 6.30      | 차세대 여성평화운동가 모임                                                               |
| 7.1-8.1   | 에베르트 재단 프로젝트 “독일통일과 여성” 연구(정현택)                                              |
| 7.3       | MD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보임사 앞 1인 시위(이집현숙)                                             |
| 7.6-현재    | 평화영상모임                                                                       |
| 7.11-7.13 | 징병제 관련 대체복무제도 시행 현장(대만) 방문(이집현숙)                                             |
| 7.12-7.14 | 참여불교재가연대 주최 “시민활동가의 여름명상수련회” 참가                                              |
| 7.13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회의                                                              |
| 7.14      | 갈등해결 전문가훈련과정 수요식 & 토론회 참석<br>군비삭감네트워크 회의                                     |
| 7.15      | 웨이커 한국지부 모임<br>평화를 만드는 여성 발행 (소식지 통권 제13호)                                   |
| 7.17-7.19 | 8.15 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 금강산 (이집현숙 참가)                                              |
| 7.20      | 상반기 감사                                                                       |
| 7.25      | MD 강요! 무기 강매! 파월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이집현숙)                                     |
| 7.26      | 미 군축전문가 노만 레빈 토크 방문                                                          |
| 7.27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주최 “국제여성인권세미나:                                             |

|            |                                                                                                       |
|------------|-------------------------------------------------------------------------------------------------------|
|            | 군사주의와 여성"                                                                                             |
| 7.31-8.4   | 민족공동행사 2차 실무회담, 평양 (이길현숙)                                                                             |
| 7.21-7.25  | 명상아카데미                                                                                                |
| 7.22       | 행자부 프로젝트 중간평가 인터뷰(전은주 참석)                                                                             |
| 7.22-7.24  | 한국여성단체연합 단체대표자 연수(이길현숙, 정현택 참가)                                                                       |
| 7.24       | 우끼시마호 폭침 전국위령제 및 북한영화 "살아있는 영혼들" 특별상영회 참석 (전은주, 홍승희, 이은하 참석)                                          |
| 7.26       | 미국 Psycholog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을 위한 심리학자들)에서 주는 "Culture of Peace Award(평화문화의상)" 수상 |
| 7.30       | 아시아 여성자료센터(대표: 마츠이 야요리) 여성스터디투어 참가<br>자 본 회 방문                                                        |
| 8.7        | 대체복무제도 관련 대만 평화단체 간담회                                                                                 |
| 8.14       |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회해와 통일 국제회의(토론: 정현택)                                                                     |
| 8.14-8.21  |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 (이길현숙)                                                                                |
| 8.16       |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 참석                                                         |
| 8.19       | 8.15통일대축전 남북여성 간담회(이길현숙)                                                                              |
| 8.15       | 2001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                                                                                      |
| 8.31-9.1   | 회원 평화캠프, 일산                                                                                           |
| 9.4-9.6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급 수련회                                                                                    |
| 9.6        | 국정홍보처 프로젝트 중간평가 워크샵                                                                                   |
| 9.15       | 9.11테러 관련한 평화운동대응을 위한 정책협의회                                                                           |
| 9.16-현재    |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사이버 텔레시위<br>"평화쪽지 이어 날리기" 사이버 캠페인 12월30일 4,464명 참석<br>(오마이뉴스 공동기획)               |
| 9.14-9.16  | 장애여성공감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워크샵(강사: 박수선)                                                                        |
| 9.15       | 미국테러관련 정책 토론회                                                                                         |
| 9.18       | 전쟁반대 미의원 Barbara Lee 지지 공문 발송<br>성남YWCA '여성의 평화의식과 통일' 강의(김숙임)                                        |
| 9.20       |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 침묵시위 주도<br>(참석: 70여명, 참여단체 36)                                                |
| 9.22       | 통일일부 프로젝트 전문가 간담회                                                                                     |
| 9.22-10.10 | 통일세상 준비하는 어린이인형극 "땅땅이와 뽕뽕이" 전국순회 공연(15회)                                                              |



|             |                                                                                                                                                                                                                        |
|-------------|------------------------------------------------------------------------------------------------------------------------------------------------------------------------------------------------------------------------|
| 9.24        | 민족문화교류재단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강의(김숙임)                                                                                                                                                                                       |
| 9.25        | 전쟁중지 평화실현을 위한 내부 정책협의회<br>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회의와 통일교육협의회 워크샵<br>안산YWCA '여성평화운동과 통일관' 강의(김귀옥)                                                                                                                                 |
| 9.26        | 반전평화여성행동(가칭) 준비위한 김형희임자회의                                                                                                                                                                                              |
| 9.27        | 전쟁과 전쟁지원 반대 평화정착을 위한 전국 553개 단체 공동<br>성명 발표<br>시민사회대토론회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br>공동주최 (사회 이길현숙, 주제발표 정현택·국제반전평화운동과<br>시민사회의 과제, 토론 정경란)<br>안산YWCA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강의(김숙임)<br>기장여신도회 '여성과통일-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강의(이<br>문우) |
| 9.28        | 갈등해결과 관용훈련프로그램 내부전문가간담회                                                                                                                                                                                                |
| 10.5        | 고양YWCA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강의(이길현숙)                                                                                                                                                                                          |
| 10.8        | 민족문화교류재단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과제'강의(김숙임)                                                                                                                                                                                     |
| 10.9        |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br>공동 성명 기자회견 (사회: 이길현숙)<br>군포여성민우회 '여성의 몸으로 평화 만들기' 강의(김숙임)<br>안양YWCA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강의(김숙임)                                                                                          |
| 10.10       |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br>한 <반전평화 사국선언대회>                                                                                                                                                                   |
| 10.10-10.31 | 여성평화아카데미 가을강좌 '전환기 북한여성의 삶'(해주 수요일<br>/4강)                                                                                                                                                                             |
| 10.11-10.13 | 제4차 민중의유연대회와 페루시아-아시아 평화행진 정경란 참석                                                                                                                                                                                      |
| 10.12       | 전쟁반대 여성평화시위 (평화여성회 외 23개 단체→전쟁반대여<br>성평화행동)                                                                                                                                                                            |
| 10.15       | 기장여신도회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강의(이길현숙)<br>민족문화교류재단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과제' 강의(김숙임)                                                                                                                                                |
| 10.17       | 교육문화복지연구원, 통일교육원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br>강의(김숙임)                                                                                                                                                                           |
| 10.22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남북의 여성정책: 통일을 준비하는<br>여성정책' 강의(김귀옥)                                                                                                                                                                      |
| 10.26       |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여의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br>통일교육원(정현택, 김정수, 김엘리)                                                                                                                                                               |

|             |                                                                                    |
|-------------|------------------------------------------------------------------------------------|
| 10.29       | 전쟁반대 평화활동단체 실무책임자 회의                                                               |
| 10.30       |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문명의 충돌인가 구조적 폭력의 폭발인가’ 요한갈롱교수 특별강연회 후원                             |
| 11.1        | 전쟁반대여성평화활동 집행위회의                                                                   |
| 11.2        | 통일교육원 관계자모임(통일부 프로젝트 관련)                                                           |
| 11.2-11.3   | 국방장관과의 간담회 및 국방부의 NGO단체 대표의 안보현장 방문(김숙임)                                           |
| 11.7        | MD공동위 집행위 회의                                                                       |
| 11.8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발족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김현숙)                                         |
| 11.10       | 전쟁반대 평화실현 전국민대회<br>평화를 만드는 여성 발행(소식지 통권 제14호)                                      |
| 11.13       | 전쟁반대 여성평화활동 공개토론회 “여성과 어린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을 반대한다”                                     |
| 11.13-11.17 | 제네바 MD토론회 참석(이김현숙)                                                                 |
| 11.14       | 장대협 484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                                                                |
| 11.15       |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통위                                                                       |
| 11.16       | 전쟁반대여성연대 주최 “아프간 여성영상을” 참석<br>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br>유네스코평화교육세미나 참석과 스위트포(캐나다) 본 회 방문 |
| 11.20-11.22 | 유네스코평화교육세미나                                                                        |
| 11.21       |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 토론회 및 국방위원장과 여야국방위원 연담(이김현숙)                                         |
|             | 아프간전쟁 한국군파병에 관한 토론회 참석                                                             |
| 11.22-11.16 | 전쟁반대 미대사관 앞 1인 릴레이시위(이김현숙, 정현택)                                                    |
| 11.23-12.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북한임산모와 아동을 기바자회 (23일 평화여성회 여성위 부스 담당)                           |
| 11.26       | 정기이사회회의                                                                            |
| 11.28       |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회: 이김현숙)                                       |
| 11.30       |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반대 1인시위(이김현숙)                                                   |
|             |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간담회                                                         |
| 12.4        | 평화특지 1차 분석 모임<br>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3차 집행위원회                                            |
| 12.5        | 한국정부의 아프간 해외파병 반대 성명서 발표                                                           |

|             |                                                    |
|-------------|----------------------------------------------------|
| 12.6        | 창원여성외전화 '전쟁과 여성,복역-반전평화운동' 강의(이김현숙)                |
| 12.11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월상에서의 평화'강의(김숙임)                       |
| 12.12       | 5회 여성평화통일포럼 : "독일통일과 여성"<br>향민교회 여성평화운동 강의(이김현숙)   |
| 12.13       | 한국여성단체연합 송년회 참석                                    |
| 12.14       | 정책협의회 "2002년 남북정세와 평화여성회 정책논의"                     |
| 12.21       | 평화·통일여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2002 국제정세<br>와 한반도운명, 여성" |
| 12.21-12.23 | 학교 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교사 워크샵                        |
| 12.28       | 북한일산모와 아동돕기 물자(내복) 출항 참석, 인천항 제3부두                 |

### III. 위원회와 연구원 사업보고

#### <위원회 사업보고>

##### 1. 정책기획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정수
- 위 원: 공동대표, 각 위원회 위원, 전문가 2-3인 포함

###### (2) 사업목표

- ①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② 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③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 ④ 평화·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을 전개

###### (3) 사업내용

###### 1) 남북여성교류 정책모색을 위한 간담회(1차 정책협의회)

- 일시 : 4월 18일(수) 오후 4시
- 장소 : 한국여성연구소
- 사회 : 김정수 위원장
- 참석 : 이길현숙, 정현백, 김숙임, 홍승희, 조영희, 정경관, 박수선, 김화숙, 김은희, 전은주
- 내용 :
  - “4.20 판문점 여성회담에 대한 배경설명” - 정현백 공동대표
  - 현시기 남북민간교류/여성교류 상황에 대한 정세공유  
(민화협/통일연대 등의 남북교류 상황 등)
  - 평화여성회의의 남북여성교류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와 논의  
(6.15 남북공동행사 발할 등)

**2) 9.11 테러에 대한 대응 토론 (2차 정책협의회)**

- 일시 : 2001년 9월 15일(토) 오후 2시
- 사회 : 김정수 위원장
- 장소 : 본 회 회의실
- 참석 : 이길현숙, 정현택, 홍승희, 이권명희, 전은주
- 내용 : 9.11테러에 대한 상황공유, 평화운동 대응, 평화촉진날리기 사업기획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on-line 상에서 실명으로 반전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희생자 예도, 테러와 보복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촉구를 바라는 여성들의 입장) 발표

**3) 전쟁중지 및 평화실현을 위한 토론 (3차 정책협의회)**

- 일시 : 2001년 9월 25일(화) 오후4시
- 장소 : 본 회 회의실
- 사회 : 김숙임 공동대표
- 참석 : 강주혜, 김엘리, 김은희, 이길현숙, 이유일, 이은하, 전은주, 정경란
- 내용 :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대응활동, 전쟁반대 여성단체 연대망 구성에 관한 논의  
전쟁사상 정김(국내/국외) 등  
반전평화여성행동(가칭) 제안 : 기자회견, 세미나, 거리캠페인으로 진행  
평화촉진 이어날리기 지속 문제 : 1차분 촉구 2148건 미대사관에 전달  
→평화여성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조직적인 참가 유도과 방법, 이 후 연관된 활동 등에 관하여 논의  
→예, 5000건, 10000건 때의 이슈파이팅 등  
침묵시위 이후 후속 활동: 평화, 여성단체와 연대활동, 자체활동 등  
평화촉진 취지와 여성계 입장(영문) 활용방도

**4) 2002년 정세전망과 여성평화운동 (4차 정책협의회)**

- 일시 : 12월 14일 오후 5시
- 장소 :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사회 : 김정수 위원장
- 참석 : 강주혜, 김귀옥, 김숙임, 김엘리, 김은희, 박수선, 서미숙, 이길현숙, 이은하, 임희숙, 전은주, 정경란, 정현택, 홍승희
- 내용 : 2002년 통일정세전망(김정수 민화할 정책실장)  
여성평화, 통일운동의 방향 모색(이길현숙 대표)
- 순서 :

<발제 1>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 : 2002년 통일정세

<발제 2>

이김현숙(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2001년 평가와 2002년 사업방향

<전체토론>

-2002년 통일정세 전망에 따른 평화여성회의 활동방향

-사업전망에 대한 개괄적인 토론

· 주요토론내용

1. 2002년 정세분석과 여성평화운동, 통일운동에 대한 과제 모색
2. 대선시기의 후보들의 색깔론 등 평화, 통일운동에 저해되는 선거운동 견제
3. 반전평화운동에 이어 부시행정부의 확전반대운동 등 2002년 사업방향 토론

#### (4) 평가

##### 1) 성과

- 가. 2001년 한해 시기적으로 요청되는 이슈를 적절하게 점검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풍부히 하였다.
- 나. 남북여성교류 정책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이후 '6.15 1통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8.15민족공동행사 중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에 있어서 평화여성회가 여성들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 9.11 테러 이후 정책협의회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반전평화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평화여성회가 인터넷뉴스 오마이뉴스([www.Omynews.org](http://www.Omynews.org))와 공동으로 전개한 '평화확저날리기'는 사이버상에서 실명으로 전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가 거의 유일하게 참여하여 대중적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평화여성회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불어 국제평화운동단체에 한국(여성들)의 반전평화운동의 사례로 소개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여성회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확저날리기'는 오마이뉴스가 선정한 2001년도 20대 뉴스에 뽑히기도 하였다.

##### 2) 과제

- 가. 2001년 위원회의 사업목표 가운데 여성평화운동의 장단기적 정책개발과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정책제시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것으로, 향후 위원회의 정책도입 등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구성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며 사부차와의 긴밀한 결합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점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적 차원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 2. 평화통일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홍승희
- 위 원 : 안수경, 윤수경, 고은실, 이명희

### (2) 사업목표

- ① 민족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② 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 ③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 (3) 사업내용

#### 1) 회의

3/13, 4/6, 5/14, 6/12, 11/9, 2001/1/7 (총 6회 진행)

#### 2) 여성평화통일포럼

- 일시 : 2001년 4월, 7월, 10월(예정)
- 내용 : 남북관계 현안을 중심내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 대상 : 통일평화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통일단체 활동가, 평화여성회 위원 등 여론주도층

#### ① 제4차 :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 일시 : 3월 2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내용 :  
주제.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사회. 정현택(본 회 공동대표)

발제, 정연주(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토론, 정옥식(한반도평화를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

· 참석인원 : 약 5-60여명

② 제5차 : 독일통일과 여성(연구원 사업으로 추진)

· 일시 : 12월 12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새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내용 :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전후 통독여성의 삶과 지위의 변화,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 참석인원 : 약 50여명

3) 북한 임신모와 어린이 돕기 캠페인

· 일시 : 2001년 1월~4월

· 내용 :

주 관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로 추진

모 금 액 : 1500만원(평화자폐회 기금적립금에서 지출) / 전체 5000만원 모금

지원품목 : 내복 (산모와 아동용 내복)

전달방식 : 여맹, 조선여성협회, 민화협 여성위원회에 지정기탁

전 달 : 2001년 12월29일 토요일(인천항 제3부두에서 출항)

· 의의 : 무엇보다 2001년은 북한임산모와 아동돕기 캠페인과 남북여성교류활동 등 통일을 위한 본 회의 노력이 왕성하였다. 년 초부터 기아와 추위에 고통받는 북한임산모와 아동을 돕기 위해 본 회에서 97년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이후 또 마음을 모았다. 물론 97년대처럼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회의 1500만원을 기탁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 수신처 : 본 회 1500만원 외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이 모은 3500만원을 포함한 기금으로 내복 12000여벌을 구입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북의 여맹, 조선여성협회, 민화협 여성위원회에 지정기탁하였다.

4) 어린이 통일인형극 “땅땅이와 싹싹이” 전국 순회공연 (특별사업)

· 목적 : 현재 정부와 NGO에서 통일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나 대중화의 문제는 늘 과제로 남아있다. 통일을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면 그동안 통일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와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통일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정직된 통일인식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통일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기간 : 5월~11월(준비 5-8월, 공연 9월23일-10월10일까지)
- 사업대상 : 주된 사업대상 계층은 지역 여성과 어린이(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 공연지역 : 수도권, 부산, 경남, 전남, 강원 등 15개 지역 전국순회, 2500여명
- 공연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타라' 문화예술단
- 공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타라' 문화예술단, 기획, 스텝(홍승희), 연출, 대본(박인혜), 배우(김주희, 오은숙, 정해균, 최희진), 무대(전안수, 박희정), 음악(이종호), 인형제작(전안수, 최희진), 노래녹음(배우)
- 홍보 : 인형극 소개 브로셔 제작
- 통일교육 : 인형극 공연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현실적 여건상 병행할 수 없었고, 교육은 별도로 진행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5월~8월            | 통일인형극 기획회의                 | -공연제작팀 섭외와 기획회의<br>-제작에 대한 의견수렴<br>-대본작성 및 검토, 수정<br>-연출기획과정 점검                             |
|                  | 통일교육 기획회의                  | -기획회의 추진<br>-여성강좌 예정단체 및 기관 파악, 제안<br>-강사명표 구성 및 활용/ 3명 내외 고대<br>-통일교육 내용 설정<br>-강사섭외 및 워크숍 |
| 7월~8월            | 홍보<br>단위별 공연협조 의뢰          | -공연가능한 단체 파악, D6작성<br>-각 단위별 인형극 사업과 통일교육 홍보<br>-홍보책자(브로셔) 또는 전단 제작과 발송                     |
| 9월               | 언론홍보                       | -각 단위별 인형극 사업 설명<br>-각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홍보                                              |
| 9월23일~<br>10월13일 | 수도권, 지역순회 공연<br>(9-10월 집중) | -수도권 8회, 지역 5회 순회 공연 예정<br>-공연 평가, 의견수렴 진행                                                  |
| 11월              | 평가회의                       | -준비과정 평가-통일교육 평가와 통일인형극 평가<br>-이 후 계획 모색                                                    |

· 조직구성

| 팀 명  | 업무내용                                                           | 비고                           |
|------|----------------------------------------------------------------|------------------------------|
| 사업기획 | - 사업기획 및 운영<br>- 대외 협력 및 전문가 섭외<br>- 각 부문을 조직 구축/ 관리/ 연구조사     | 사업책임자 + 사무처 + 공연팀            |
| 공연   | - 연행극 공연 기획<br>- 대본/ 음악/ 제작/ 연출/ 스텝/ 무대<br>- 배우 섭외 및 공연 준비/ 공연 | 기획/연출 + 배우 + 제작팀 + 음악 + 스텝 등 |
| 홍보   | - 홍보전략 수립/ 운영<br>- 온라인 매체 및 오프라인 매체 홍보 담당                      | 사무처                          |
| 관리   | - 예산 수립/ 집행<br>- 물품 및 공연팀 섭외 및 관리                              | 사무처                          |

· 공연일정 및 관람인원 :

| 회수 | 일정               | 주관단체        | 공연장소        | 관람인원 |
|----|------------------|-------------|-------------|------|
| 1  | 9/23(일) 오후 2:30  | 부산민주공민 의    | 부산민주공원      | 200  |
| 2  | 9/23(일) 오후 4:00  | 부산여성회, 문화센터 | 부산민주공원      | 200  |
| 3  | 9/24(월) 오전10:00  | 경남여성회       | 남산복지회관 1층강당 | 150  |
| 4  | 9/24(월) 오후 2:00  | 울산여성회       | 동구남목3동사무소   | 200  |
| 5  | 9/24(월) 오후 3:30  | 울산여성회       | 동구남목3동사무소   | 200  |
| 6  | 9/25(화) 오전11:00  | 김포여성민우회     | 김포여성회관      | 200  |
| 7  | 9/26(수) 오전10:30  | 안산ywca      | 청소년문화의집     | 150  |
| 8  | 10/ 5(금) 오후 5:00 | 과천민예총       | 과천갈현동사무소    | 70   |
| 9  | 10/ 5(금) 오후 7:00 | 과천부림문화의집    | 과천부림문화의집3층  | 50   |
| 10 | 10/ 6(토) 오후 2:00 | 두레당선교센터     | 의정부할렐루야교회   | 50   |
| 11 | 10/ 7(일) 오후 2:30 | 교회연합회       | 전남 순창       | 200  |
| 12 | 10/ 9(화) 오전10:30 | 수원여성회       | 경기문화재단      | 250  |
| 13 | 10/ 9(화) 오전11:30 | 수원여성회       | 경기문화재단      | 80   |
| 14 | 10/10(수) 오전10:30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시 여성회관    | 200  |
| 15 | 10/10(수) 오전11:30 | 원주여성민우회     | 원주시 여성회관    | 200  |
|    | 합 계              |             |             | 2400 |

· 성과

가. 통일외식 확산을 위해서 소수의 대중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참신한 기획으로 통일운동의 대중화의 모델링이 되었으며 새세대 어린이에게 인형극을 통한 입체적인 통일교육 시도하였다.

나. 딱딱하다고 느끼는 통일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신선한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성단체에서의 관심 또한 좋은 호응으로 평화와 통일 의식을 확산하였다.

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부산, 경남, 전남, 강원, 경기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국에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능동적인 통일운동을 펼쳤고, 지역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에도 기여하면서 본 회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얻었다.

라. 문화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내부 인프라 구축의 가능성이 보이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 한계 및 과제

가. 전국순회공연에 실무자가 교대로 파견다니기도 했지만 역량이 많이 부족하였고, 문화공연자체가 전문예술인만큼 실무자 몇몇으로 기획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인력풀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전체입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모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나. 자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공연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기획과 대본과정에서 입장을 모아내는 과정이 부족하였고, 대중의 반응이나 평가의 내용이 피드백되지 않고 단순히 일회 공연에만 그쳤던 것이 아쉬운 지점이었다.

다. 언론사 홍보 등에 주력하지 못하여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좋은 기회를 심분발휘하여 알려내지 못하였으며 여론을 확산하는데 많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서울 행사도 기획하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라. 첫 공연의 평가에 기반하여 좀 더 대중적이고, 일체적인 통일교육과 이후 지속화할데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인형극사업을 활성화시켜 대중기획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5) 여성통일강좌 순회강연 (특별사업)

· 일시 : 9월-12월

- 내용 : 남북여성교류, 평화의식확산, 일상에서의 평화 통일교육 등
- 강의일정 :

| 회수 | 일정               | 내용             | 주관단체     | 강의   |
|----|------------------|----------------|----------|------|
| 1  | 9/27(목) 오전11:00  |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 기장여성신도회  | 이문우  |
| 3  | 9/28(금) 오전11:00  | 여성과 통일(남북여성교류) | 수원ywca   | 이김현숙 |
| 2  | 10/15(일) 오전11:00 | 여성과 통일(남북여성교류) | 기장여성신도회  | 이김현숙 |
| 4  | 12/ 6(목) 오후 2:00 | 반전평화운동         | 창원여성의전화  | 이김현숙 |
| 5  | 12/11(화) 오전 9:30 | 일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 구로여성인력센터 | 김숙임  |

#### 6) 사이버평화축제 - 공모전, 평화통일길라잡이 (특별사업)

- 일시 : 6월~10월(준비 6~7월, 진행 8~9월)
- 새 도메인 개설 : [www.peacewomen.com](http://www.peacewomen.com)
- 대상 : 청소년(녀), 남녀대학생, 일반여성 등
- 내용 :
  - 사이버 공모전(배너, 아이디어, 캐릭터, 삼행시)
  - 응모인원: 배너(28명), 행동실천 아이디어(41명), 캐릭터(54명), 삼행시(113명)
  - 사이버 평화퍼즐(그림퍼즐, 낱말퍼즐, 퀴즈)
  - 평화통일길라잡이(사이버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 교육자료 사이트에 게시)
  - 평화교육위원회에서 주관 / 총 : 10장

#### <사이버 평화축제-사이버공모전>

- 사이버기획팀 : 전은주, 이권명희, 김화숙, 김은희, 오랑희(자문)
- 콘텐츠팀 : (교육 : 교육위원회 위원, 사이트기획(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기획 등)  
: 양호원, 오랑희, 이무관, 권원석, 김윤경, 퍼즐제작 : (주)자바일)
- 일정 :
  - 홍보 : 6/15~7/31
  - 공모기간 : 8/1~8/31
  - 심사 : 9/1~9/15
  - 당선작 제시 : 9/17
  - 당선작 제시 및 평가 : 9/17~10/15
- 공모전 참가인원: 배너 28명 행동실천아이디어 41명 캐릭터 54명 삼행시 113명
- 심사위원: 본 회 상임대표(이김현숙)+온라인전문가 2명(양호원,오랑희)+사업책임(전은주)

· 공모전 수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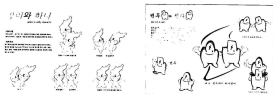
캐릭터 : 대상(송영진) 우수상(김윤희, 최진영) 입상(양성운, 김태연, 김윤희)

배너 : 대상(조상미) 우수상(김효중, 김미정) 입상(김애리, 임두성, 김정훈, 전창희, 무명)

행동실천아이디어 : 우수상(조성혁, 김채수) 입상(김준태, 김정은, 민이, 최희아, 심재곤, 김애리, 장문호, 이지희, 박은주, 이승희, 이광호, 김태진, 장지혜, 이은정, 이은지, 최지웅, 손현일)

삼행시 : 대상(박은선) 우수상(천봉남, 서재균) 입상(김태연, 임두성, 김다미, 김채수, 윤진, 심해정, 최민경)

· 캐릭터 당선작(예) :



· 홍보활동:

-과 구청자원봉사센터, 대학별 사회봉사센터 등에 자원봉사자 요청한 후 성균관대(2), 경기여고(1), 덕성여대(1) 학생 자원활동

-500여개의 사이트에 게시판 글 올리기, 배너 제작으로 사이트링크 링크(소수 단체)

<사이버평화축제-평화피플>

· 평화,통일 날말피플 제작 : 북한말 알기, 평화,통일 시사용어 알기

· 평화피플 프로그램 제작 :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시사상식

· 도형그림피플 제작 : 평화의 이미지로 배경, 도형맞추기

· 퍼즐제작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외부업체(주, 자바일)에 의뢰

· 진행과정: 프로그램 효과성 피드백 검증 과정 부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는가 측정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불가능, 의견접수 메일보서의 한계

· 퍼즐디자인: (날말피플, 퀴즈, 그림피플)



#### <사이버 평화 통일교육 : 평화통일길라잡이>

- 진행 : 1차 교육내용 5강(8월 게시), 2차 교육내용 5강(9월 게시)
- 형식 : 영역별 주제다루기, 평균 주 1회 분량으로 게시
- 내용 : 교육컨텐츠팀에서 교육내용 마련, 감사 선정, 원고 의뢰, 원고 마감 등 평화통일길라잡이 사업의 전반적 진행.
- 진행 : 평화와 통일의 사안이 일반인들에게는 워낙 어렵게 다가가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더욱 쉽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
- 내용 : (평화교육위원회 보고 참조)
- 성과

가. 짧은총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이 확대

강과형식의 평화·통일사업을 탈피하면서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없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대중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이버평화축제'(사이버공간모건과 평화·통일길라잡이(사이버교육))를 통해 평화와 통일운동을 대중화시켜내는 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 나.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의식의 간접경험

사이버공간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여성들이 참여하면서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넓혀주게 되었고,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참가한 일반대중들의(특히 청소년) 평화의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다. 사이버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부족하고 생소한 측면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적네트워크 형성하였다.

라. 콘텐츠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증대

그동안 사이버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본 회의 정책성과 콘텐츠 개발 등 상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의견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 한계 및 과제

가. 아직까지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간사가 없음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이나 사이버활동 등을 펼쳐내는 데 부족함이 너무 많으므로 정보화사업담당자를 보완하여 21c정보화시대에 맞게 본 회의 활동도 넓혀가야 한다.

나. 사이버마을이나 교육자료 등의 차별화도나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회원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작년에 사회적 관심과 대단한 호응을 얻었던 ‘평화쪽지날리기’와 같은 사이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다. 혼자서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으므로 사이버사업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피드백과정을 거쳐 본 회의 전문성도 높이고, 사이버활동을 통한 대중적 참여를 적극화해야 한다.

라. 사이버사업에 대한 기획단계의 자금과 정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평가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아직까지 상호소통이 아닌 일방적 소통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평화군축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내 연대활동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단 활동
- 평화 · 통일과 관련한 국내 연대활동

(4)미선행사업

1) 여성통일아카데미

- 일시 : 2001년 5월, 9월
- 내용 :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북한여성과 사회, 북한여성과 조직, 북한 여성과 정치, 북한여성과 가정, 북한여성과 경제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 대상 : 평화여성회 회원, 여성단체 회원, 여학생, 일반여성

## 2) 여성평화통일이올마당

· 일시: 2001년 8월 15일 전후

· 내용: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행사로서 여성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일반여성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행사를 추진한다.

· 장소: 대학교 등

=> 여연과 공동행사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전체통일운동 일경에서 여성쪽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여연 통령위에서 기획 중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 (5) 사업평가 및 과제

### 1) 성과 및 한계

· 평통위의 회외구조의 안정화 기반 조성

이전 상황에 비해 평균 월1회 정도의 정기적인 회의 진행으로 논의의 지속적 흐름 형성

· 통일인형극, 사이버축제 등 평통위원회의 전문성에 강화에 기여하는 대중사업의 전개로 대중적 참여폭을 넓이고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업이나 실천공간에서 회원들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함

### 2) 과제

· 위원회 구성원의 보강 과제- 논의의 풍부화와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

· 위원회의 집중사업을 설정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인원의 확대 공간 마련

· 평통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강사활동의 시도와 확대

## 3. 평화교육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숙임
- 위 원 : 이은선, 박애경, 최영숙, 김정수, 임희숙

**(2) 사업목표**

- ① 평화의식과 통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 실시
- ②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운동 여성지도력 개발
- ③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 전개

**(3) 사업내용**

1) 회의 : 2/27, 3/14, 6/19, 8/17, 12/13 (총 5회 진행)

**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1년 강좌**

· 목적 : 2001-2010년 ‘세계 평화의 문화와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전반의 반평화 폭력구조를 변화시켜 평화문화 정착을 실현하는 여성 인력을 훈련하고 개발한다.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대를 구축하며 평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타 단체의 평화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도모한다.

**①봄 강좌**

- 기간 : 2001년 4월 25일-5월 16일 대주 수요일, 총 4회
- 장소 : 동북여성인우회 교육장
- 내용 : 여성의 목소리로 평화 말하기(4/25 이길현숙 본 회 상임대표)  
분단과 여성, 그리고 통일 과정(5/2 정현백 본 회 공동대표, 성균관대)  
주한미군, 한국사회와 여성에게 무엇인가 (5/9 김현선, 새움터 대표)  
일상에서 평화만들기 (5/16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진행방법 :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질문과 토론을 결합
- 참석자 : 15-20명
- 평가 :  
가. 대외적 성과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평화 문제를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이를 제검토함으로써 평화 여성운동단체로서의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강좌 참여자들이 이후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이 평화 관련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곧 평화운동 주체의 외연 확대라는 성과와 연결되는 것이다.

#### 나. 조직적 성과

강좌에 참여한 여성들(이들은 대개 지역단체의 자원봉사자이거나 주부들이었다) 스스로가 소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본회에 소모임 내용 구축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화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킴으로써 평화 이슈와 관련된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예] “5. 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다. 과제

아카데미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강의 위주의 교육 방식이다. 시청각매체, 토론식 수업 등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 논의에만 머물고 있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여성단체로서의 정치성을 건고히 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평화문제를 바라보는 여성평화이슈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차후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②가을 강좌

- 기간 : 2001년 10월10일-10월31일 매주 수요일 7:00-9:00(총 4회)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 교육장
- 내용 : 전환기 북한 사회와 여성주체(이집현숙)  
새세대 여성들의 성과사망 (김혜영)  
변화하는 북한, 가족과 결혼(박현선)  
남북한 여성의 차이의 수용과 통합을 위한 모색(정현백)
- 진행방법: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질문과 토론을 겸함
- 참석자 : 1회(14명) 2회(22명) 3회(12명) 4회(33명)
- 평가 :  
가. 대외적 성과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진 만한 주제 (북한 여성들의 성(sexuality), 사랑, 가족 등)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북한 사회에 관심이 없는 20대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20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북한 여성의 삶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가부장적 사회'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을 우리와 다른 그 무엇으로 이해하게 만드는데 반공이데올로기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강과 참여자들이 이후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 지난 12월12일 열린던 '독일통일과 여성'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도 평화운동 주체의 외연 확대라는 성과와 연결된다.

#### 나. 조직적 성과

무엇보다 북한 여성에 대해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낯설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킨 점은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본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평화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성 가능성과도 연결되는데 아카데미 참여자 중 3명이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0년대 들어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와 여성의 삶을 성사회화과정과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다. 과제

평화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평화이슈가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육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평화교육의 대중화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 년에 1-2번 하는 교육으로 부족하며 평화교육 소모임 등 정기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도 나타났듯이 평화이슈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사진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강사 training 및 강사뱅크 운영)

한편 90년대 후반 들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on-line운동을 평화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를 회원 조직화에도 연관시켜 아카데미 수강자들이 행사 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본회 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3) **사이버 평화통일교육(평화통일길라잡이)**

· 목적 : 평화와 통일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그 내용적 뒷받침을 위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평화,통일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가능한 오프라인에  
서도 그 활동을 병행시킨다.

· 기간 : 8월-10월

· 방식 : 홈페이지([www.peacewomen.com](http://www.peacewomen.com))의 '평화통일길라잡이'코너에 게시

· 내용과 쟁점

1강: 일상의 반평화로부터(김숙임)

2강: 시련 속의 복讎 여성들의 일과 사랑, 그리고 희망(김귀옥)

3강: 우리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권혁범)

4강: 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이유 (정옥석)

5강: 평화감수성, 왜 필요하며 어떻게 훈련될 수 있을까? (김정수)

6강: 한반도 통일과 여성(정현백)

7강: 분단 극복과 통일 준비를 위한 교육의 과제 (임희숙)

8강: 기지촌과 여성의 인권(김현선)

9강: 여성과 평화운동(이갑현숙)

10강: 변화하는 북한, 가족과 결혼(박현선)

· 조희수: 1강-119, 2강-87, 3강-66, 4강-65, 5강-98, 6강-93, 7강-99, 8강-65, 9강-106, 10강-63 평균: 86(2002.1.15.기준)

#### 4)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프로그램

①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기획 워크숍

· 일시: 5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여성교회

· 내용:

· 전제진행: 박수선(갈등해결팀장)

평화적 갈등 해결 교육에 대한 희망, 목표 공유  
그라운드 를 정하기

일정 소개, 점검

■ 갈등해결 방법론의 배경과 갈등해결 이론의 기본적인 이해(진행: 김정수)

1. 갈등이란?

2. 갈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3. 갈등해결 유형-나는 어떻게 갈등에 대응하고 해결하는가

4. 갈등해결의 여러 방식과 수단-평화적 갈등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

5.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 협상이란? 협상의 4원칙(진행: 정경환)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2. 입장에서 실의으로
3. 상생적 대안 만들기
4. 객관적인 기준 적용

■ 협상의 과정-6단계(진행: 박수선)

1. 각자가 원하는 것을 기술하라
2. 각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표현하라
3. 입장에 대한 이유를 서로 교환하라
4. 각자의 시각을 이해하라
5. 상호이익을 위해 선택사항을 마련하라
6. 현명한 합의에 도달하라

평가 및 토론평화직 갈등해결 교육은 평화교육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② 학교교사를 위한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 일시 : 12월21일 3시~23일 2시

· 대상 : 의정부 민락중학교 교사 10명(모두 여성)+ 이은성(서울대대학원 교육학과 재학)+갈등해결법(박수선, 김정수, 정경란)+이재영(EMU CIP 석사과정, KAC평화담당 간사)+이은하(교육연구부장)+김숙임교육위원장+장희원

· 내용

<첫째날>

| 시 간    | 내 용                                                                                      |
|--------|------------------------------------------------------------------------------------------|
| 3시     | 환영과 소개<br>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공유<br>- 이 프로그램에서 얻고 싶은 세 가지, 피하고 싶은 세 가지<br>- 일정 소개 / 진행 규칙 정하기 |
| 4시     | 갈등 해결 이해하기1<br>- 갈등이란?<br>- 우리는, 나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br>- 평화와 폭력                  |
| 6시     | 맛있는 저녁 먹기                                                                                |
| 7시 30분 | 갈등해결 이해하기2 - 평화직 갈등해결의 필요성                                                               |

<둘째날>

| 시 간    | 내 용                                                                   |
|--------|-----------------------------------------------------------------------|
| 8시     | 일어나 산책하기, 아침식사                                                        |
| 9시     | 어제 프로그램 평가                                                            |
| 9시 30분 | 갈등분석<br>갈등원인 분석, 갈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이해                               |
| 12시    | 점심식사                                                                  |
| 1시 30분 | 갈등해결의 방법 배우기(역할극을 통해 갈등해결의 방법 실습)<br>- 대화연습 : 의사소통 기술<br>- 중재의 원칙과 방법 |
| 6시     | 저녁식사                                                                  |
| 7시 30분 | 외국사례:포러중재, 자유토론                                                       |

<셋째날>

| 시 간    | 내 용            |
|--------|----------------|
| 8시     | 일어나 산책하기, 아침식사 |
| 9시     | 어제의 프로그램 평가    |
| 9시 30분 |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교육  |
| 12시    | 점심식사           |
| 1시     | 전체 프로그램 평가     |
| 2시     | 김으로 돌아가기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갈등과 갈등해결 이해 (진행:이재영)

- 1) 갈등 그리기
- 2) 갈등과 분쟁의 의미와 관계
- 3) 갈등발생의 원인
- 4) 갈등의 증폭
- 5) 폭력
- 6) 힘과 갈등
- 7) 갈등대응의 유형
- 8) 문제해결
- 9) 문제해결의 접근 방법
- 10) 갈등변환

나. 갈등분석(진행: 정경란)

1. 갈등분석이란?
2. 갈등분석의 여러 기법
3. 갈등분석 실습
  - 1) 양파
  - 2) ABC 삼각형
  - 3) 갈등나무
  - 4) 갈등지도

다. 갈등해결의 방법 배우기(역할극을 통해 갈등해결의 방법 실습-진행:박수선)

1. 대화연습: 의사소통 기술
  - 1) 좋은 대화, 싫었던 대화의 경험 나누기
  - 2) 대화기법
  - 3) 역할극(fish bowl)을 통한 대화 실습
  - 4) 토론
  - 5) 문제해결하기 위한 4가지 원칙
    -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 입장이 아닌 실익에 초점을 맞추라.
    -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라.
    -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라.
2. 중재의 원칙과 방법
  - 1)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자의 역할
  - 2) 중재의 3원칙/자율성·중립성·비밀 보장
  - 3) 중립성 훈련
  - 4) 중재의 과정 및 실습
  - 5) 역할극을 통한 중재 실습
  - 6) 토론

라. 평화교육(진행: 김정수)

1. 평화와 폭력의 개념
2. 평화교육이란?
3. 평화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과정, 예방)
4. 공식적 평화교육과 비공식적 평화교육
5. 해외 평화교육 사례
6.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적용가능성

마. 토대중재(진행: 김정수)

1. 미국의 토대 중재의 역사
2. 학교에서의 토대 중재 프로그램 조직
3. 토대중재의 선발과정 및 중재 과정 소개
4. 토대중재의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한계 및 과제)

- 평가

가. 성과

- 평화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사 대상의 첫 번째 교육
- 학교의 평화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제도(토대중재), 방법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요 과제인 평화교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개발 가능성 확인(교육의 상품화, 대상의 조직화, 제도의 변화 실현 등)
- 준비도입부터 실제 워크샵 진행까지 팀 단위 협동작업 진행-교육 전문화의 기초 마련
- 조직된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교육적, 실천적 적용 가능성 증대 .이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트레이닝(심화 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나. 과제

- 교육방식의 연구
- 다양한 교육, 훈련 패키지 개발  
(2박3일 프로그램,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단시간 교육 등)
- 실천적 적용의 구체성을 갖기 위한 심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선전, 홍보

(4) 미실행 사업

1) 평화기행

상반기 평화기행, 하반기 전쟁반대시위 등 사무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기행을 내년으로 연기함

2) 평화교육심포지엄

심포지엄 형태 사업에 대한 기획요구가 큰 착안이 아니어서 올해 사업으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 3) 인권재단 간담회결과관용훈련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었으나 지원규모가 작아 예산 대비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무처에서 반환하기로 논의함

## 4. 재정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서미숙
- 위 원 : 윤명선, 이유일, 김정화, 최경원 (사임 : 박형욱, 이낙호, 최현숙, 권은주, 김옥경)

### (2) 사업목표

- ① 자립제정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을 개발한다.
- ② 2001년 운영비를 재정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③ 재정위원을 보강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 (3) 사업내용

- 1) 회의 : 2/8, 2/14, 3/7, 3/19, 4/2, 4/10, 4/17, 4/23, 5/16, 6/21, 8/29, 10/26, 12/14 (총 13회 진행)

### 2)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캠페인

#### ① 일시 장소

- 일시 : 4월 28일(토) 오전11시-오후10시30분
- 장소 : 세실레스도랑(시청, 성공회성당 지하)
- 대상 : 회원, 후원회원, 평화.통일.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
- 내용 : 푸짐한 먹거리(하루호프)와 기증품 협찬품 판매(작은바자회)

평화남성 모집(50명), 북한임산모와 아동돕기 (수익금의 3,000,000원)

#### ② 프로그램

|             | 시간        | 내 용                                                                                  | 평가                                                                |
|-------------|-----------|--------------------------------------------------------------------------------------|-------------------------------------------------------------------|
| 1부 예선식      | 2:00-4:00 | 사회 : 이길현숙 상임대표<br>감사(초대)인사 : 이우정, 서미숙<br>평화친구 소개 : 후원자, 내빈, 기타<br>노래공연 : 김민석 어머니 합창단 | -전체프로그램을 눈에 보이<br>도록 부착(큰 전지용)<br>-안내원이 번호를 매겨 프<br>로그램 안내문을 제공하자 |
| 2부<br>평화말하기 | 5:00-6:00 | 사회 : 오숙희<br>노래공연 : 예쁜마미들<br>평화를 만드는 남성 이야기 마당                                        | -주부가 참여 할 수 있는<br>프로그램 개발 필요<br>-각 코너가 운영되지 못할                    |
| 3부 알선식      | 6:00-7:00 | 사회 : 김숙일 공동대표<br>감사인사 : 김현덕 공동대표<br>평화회를 나누기(공해) : 사회자                               | (장소와 프로그램에 따라<br>배치와 흥분, 진행어부 신<br>중)                             |

### ③자원봉사

· 텀가협어머니(해동파전) 김주란(행사 당일 그릇 제공),이명재 오재철과 남자친구, 송윤창과 여자친구, 노길림, 문명녀, 이명희, 홍승희, 박수선, 안수경, 정경란, 김귀옥, 장민혜,

· 책임자 : 주방(이유일), 서빙(최경원), 판매(서미숙), 재정,실무총괄(김은희), 프로그램(이길현숙)

### ④음식판매(반찬용)

기획메뉴: 햇잎김치(100개),삼바귀김치(100개)오징어채무침(60개)오이피클(100개)

| 담당  | 내 용(재료비)                                                                                                                                  | 평 가                                                                                           |
|-----|-------------------------------------------------------------------------------------------------------------------------------------------|-----------------------------------------------------------------------------------------------|
| 서미숙 | 김치(12만원), 오이피클(14만원)<br>⇒ 회원교회(제직위원회)                                                                                                     | ·기획회의보다 일일이 추가될⇒물량을 줄이고<br>처음기획안을 진행                                                          |
| 이유일 | 오징어채, 삼바귀                                                                                                                                 | ·적극적 판매 홍보가 없었다.⇒프로그램 시간<br>별로 진행자가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br>용과 안내문을 눈에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br>다.         |
| 이낙호 | 햇잎김치(100개-98천원) 오징어<br>젓(110개-17만) 콩장(10개-18천)<br>마늘볶(31개-44천) 고들빼기(76개<br>-12만) 된장(11개-유선근기행) 오<br>디향(9개-3만) 감식초(13개-3만)<br>행기(350개-14만) | ·반자회: 가격적점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판매<br>상품소개를 눈에 잘 보이도록 부착, 재고는<br>사계 처리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참석하지 못<br>한 사람에게 판매하자 |

### ⑤메뉴 및 담당

| 종류  | 담당과 내용                                                           |
|-----|------------------------------------------------------------------|
| 주요  | 떡주기를(두산떡주), 소주(최경원기행)                                            |
| 안주  | 떡갈집(윤명선), 수육(이낙호), 해물미전(최경원), 마른안주(이낙호), 치즈크래커<br>(최경원), 김치(전순란) |
| 음료  | 녹차, 커피(구입), 식혜(이낙호)                                              |
| 먹거리 | 김밥(김경화), 샌드위치(이유일), 떡(이낙호)                                       |

### ⑥ 협찬사와 협찬품

| 성명              | 성외                   | 내역                                                                                 |
|-----------------|----------------------|------------------------------------------------------------------------------------|
| 매결산업(주)         | 최경원(준비위원)            | 가정용품세제 한발음 500개, 트리플임스탁세트(10개), 퓨어화이트 40ml (20개), 고급세트화장품(10개), 치약 2000 여형음 (120개) |
| 무열주요<br>(주)오비맥주 | 최경원(준비위원)<br>박금혜(회원) | 의류(자켓, 와이셔츠, 남양)와 커피잔세트<br>오비맥주 30Box (12개입)                                       |
| 월라코리아           | 정현택(공동대표)            | 1,000,000원 후원                                                                      |
| 핀나이코리아          | 서이숙(준비위원장)           | 500,000원 후원과 핀나이가스 소형 10개                                                          |
| 창조퍼션            | 이낙호(준비위원)            | 스카프 30장                                                                            |
| 히이트호텔           | 윤명선(준비위원)            | 뷔페이용권 2장                                                                           |

### ⑦ 품종기증

| 성명           | 내역                         |
|--------------|----------------------------|
| 박수선(서기)      | 의류와 액세서리, 커피세트(4개), 장신구 등  |
| 이유일(준비위원)    | 스카프 30장, 넥타이 10개 (실크 100%) |
| 홍승희(평론위원장)   | 가발                         |
| 한우섭(여성외교화연합) | 의류, 그릇                     |
| 신혜수(여성외교화연합) | 다기세트 2종류                   |
| 김현택(공동대표)    | 스카프1장, 가발, 브로치             |
| 김숙영(공동대표)    | 구두, 액세서리, 의류               |
| 최경원(준비위원)    | 진바지 20벌, 액세서리 등            |
| 전문주(이사)      | 액세서리                       |
| 이영희(평론위원)    | 그릇, 생활용품, 남자코트, 여자자켓, 한복 등 |
| 이복금(회원)      | 밀크코트 1벌                    |
| 전은주(상근자)     | 시계2개, 해리피, 머리핀             |
| 이미경(이사/국회의원) | 액자                         |

### ⑧ 후원금 현황

#### · 개인후원

이희호(영부인), 정춘자(전 수원YWCA 회장), 김희선(국회의원), 이경희(광원여성회전화), 신필관(청화대비서실장), 한숙자, 최영희(국회의원), 이연숙(국회의원), 김근식,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 원장), 한화갑(국회의원), 서경서(우리민족서로돕기 집행위원장), 김용태, 서동만, 이상훈, 이종석, 박순성

#### · 단체후원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부,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사문제연구소, 장상수녀연구회, 기장여장로회, 통일교육협의회, 한국여성외교화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 회원

강남식, 김정화, 김귀옥, 김병화, 김미경, 김성아, 김수정, 감숙임, 김순영, 김애실, 김열람, 김연수, 김은희, 김정수, 김지선, 김혜련, 김화숙, 노길림, 문평너, 박선숙, 박수선, 박애정, 박영숙, 박현선, 박형옥, 서미숙, 신인영, 안병선, 안수경, 여혜숙, 윤명선, 윤순녀, 이재경, 이명희, 이문우, 이우정, 이은숙, 이은혜, 이정자, 이현숙, 장도송, 전은주, 전은주, 정경란, 정현백, 지정순, 최경원, 한진희, 홍숙자, 홍송희

· 평화를 만드는 남성

강원용(평화포럼이사장), 강경구(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상위원회 상임대표), 권건관(참여연대 밝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위원장), 김정재(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김동균(좋은벗들 이사), 김상근(기독교서회 사장), 김성훈(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김영운(공동체성서연구원 원장), 김영환(과학기술부 장관), 김종환(한양대 총장), 김진(크리스찬아카데미), 나건호, 문정현(불평등한SOFA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박건영(카톨릭대 교수), 박경서(인권대사), 박명천(연세대 교수), 박순성(참여사회연구소),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재호(서울랜드 과장), 박희영(수원고등학교 목사), 별류(좋은벗들 이사장), 성암(서강대 교수), 성태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안해용(수원명성제일교회 목사), 양득락, 오재식(한국선명회 회장), 유전, 이부영(국회의원), 이삼열(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이석대(변호사), 이성민(인원대 교수), 이승환(민화협 사무처장),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장희(통일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이진홍(연합정보서비스 사장), 임종서(국회의원), 임종희(통일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전만규(매향리주민대책위 위원장), 전대국(강원대 교수), 조용환(인권재단 사무총장), 조재국(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채수일(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철원,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홍문신, 황성규(전 한신대 교수), 황인성(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⑤ 결산

| 수 입     |            | 지 출         |            |
|---------|------------|-------------|------------|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 후원금(개인) | 6,000,000  | 장소비(세실리스호텔) | 1,400,000  |
| 후원금(단체) | 1,090,000  | 자료비         | 1,684,000  |
| 광고납입    | 4,855,072  | 물품비         | 976,300    |
| 티켓판매    | 9,397,260  | 인쇄비         | 1,067,190  |
| 물품판매    | 3,978,000  | 순이익금        | 20,422,322 |
| 합 계     | 25,549,812 | 합 계         | 25,549,812 |

### 3) 2001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회원과 후원자 확보(회비 인상)

CMS 후원회원 가입 : 계과 자동이체 회원

- 운영 : 여성연합이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가입하여 총괄 관리한다
- 경비 : 참여단체와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  
인건비 : 60만원 / 통장개설비 66,000원 / 임금전당 120원(개별단체분담)  
분담금 : 모집 인원에 따라 차등 분담
- 진행
- 세부일정

| 일 정        | 내 용                          |
|------------|------------------------------|
| 10월26일(금)  | 캠페인 양식 발행                    |
| 10월26일(금)  | 재정위 12차 회의 안건으로 논의           |
| 11월20일(화)  | 소식지에 안내문 발송                  |
| 2002년 1월말  | 기존 회원 가입 안내 전화작업 진행(출회준비 병행) |
| 2002년 1차운영 | 회원 확대 캠페인 (각 위원과 열심회원 중심으로)  |

- 회원 확대 캠페인 (3차 운영위 결의 안)
- 열심회원 : 50명 x 1명 = 50명
- 대표와 상근자 : 6명 x 5명 = 30명
- 위원과 위원장 : 30명 x 3명 = 90명 (총 170명)
- 각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CMS가입 안내 전화작업 진행하기로 함
- 이사는 공동대표에서 진행하기로 함
- 12월 14일 현재 가입 회원(4명)
- 캠페인 양식

| *회원권구*가 되어 주세요                                                                      |                                                                                                                                           |                                                                                                                                                                                                                       |                         |
|-------------------------------------------------------------------------------------|-------------------------------------------------------------------------------------------------------------------------------------------|-----------------------------------------------------------------------------------------------------------------------------------------------------------------------------------------------------------------------|-------------------------|
| NO.                                                                                 |                                                                                                                                           |                                                                                                                                                                                                                       |                         |
| 성명                                                                                  |                                                                                                                                           |                                                                                                                                                                                                                       | 자동이체 출금동의서(CMS출금이체 동의서) |
| 직                                                                                   | 주소:                                                                                                                                       | 연락처:                                                                                                                                                                                                                  | 출금은행                    |
| 일터                                                                                  |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
| e-mail                                                                              |                                                                                                                                           |                                                                                                                                                                                                                       | 주 인 을 축                 |
| 회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열심회원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input type="checkbox"/> 후원납입식                                                | 연호                                                                                                                                                                                                                    |                         |
| 휴대전화                                                                                |                                                                                                                                           |                                                                                                                                                                                                                       | 이메일주소 (인)               |
| 회비                                                                                  | 여불 <input type="checkbox"/> 5천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br>남성회원 : 100만원 이상 | 가입경로<br><input type="checkbox"/> 자연,강좌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input type="checkbox"/><br><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추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무제한은 CMS방식으로 자동이체 할 수 없습니다.<br>그리고 농협은 단위조합인지 중앙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                         |
|  |                                                                                                                                           | 서울시 중구 광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집 4층<br>2275-48600 2275-48611<br>wmp@cholsan.net www.peacewomen.com                                                                                                                           |                         |
| 사단법인 평화불안드네여성회                                                                      |                                                                                                                                           |                                                                                                                                                                                                                       |                         |

#### 4) 회원캠프

- 일시: 8월31일-9월1일(1박2일)      장소: 일산
- 참여: 안병선, 박영애, 윤명선, 이명희, 김정수, 김엘리, 이유일, 김현숙, 서미숙, 박수선, 홍승희, 이김현숙, 정현백, 김숙임, 전은주, 이은하, 김은희 (17명)
- 내용

| 시간          | 8월31일(금) | 담당  | 시간          | 9월1일(토) | 담당            |
|-------------|----------|-----|-------------|---------|---------------|
| 18:00~20:00 | 식사와 휴식   |     | 7:00~ 9:00  | 식사와 휴식  |               |
| 20:00~23:00 | 나와 평화여성회 | 김숙임 | 9:00~12:00  | 인간관계훈련  | 배숙일<br>(인현여전) |
| 23:00~24:00 | 자유시간과 취침 |     | 12:00~ 2:00 | 식사와 집으로 |               |

- 준비 : 이유일, 김현숙(식사)      윤명선(작은바자)
- 사무처 평가 : 회원 만남이 좋았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년1회)
- 재정위 평가 : 년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하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다양하게), 강 소인산 가능, 작은바자회 운영(귀중품·협찬품 판매⇒경매방식 좋을 것 같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여는 마당과 닫는 마당 시간 조정, 시간을 잘 지켰으면 한다. 1박2일 프로그램인데 끝까지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5) 미션형 사업 ⇒

#### (4) 사업평가

##### 1) 성과

가. 재정사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평화카페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성실하게 준비되었으며, 활동력이 약해진 이유일, 김정희, 전순환 회원이 준비위원으로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한 “평화남성”은 평화카페 기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나. 새롭게 진행된 회원평화캠프는 회원들 각자의 삶을 나누고 평화여성회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년 1회 또는 2회로 진행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 재정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의 삶을 나누고 평화여성회의 재정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는 여러 가지 논의를 책임성 있게 진행하였다.

## 2) 과제

가. 재정위원들이 재정에 대한 부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면서 위원들의 구성원이 매우 약화되었다. 또한 2001년 한해 동안 계속해서 새롭게 위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나. 회비를 통한 재정사업(CMS회원가입과 평화친구만들기 캠페인)을 계속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위원과 평화여성회 전체가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담당자는 다른 업무에 밀려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의 결과로 모집과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기존회원의 회비율을 높이고 회원들의 욕구를 받아 소모임 개발과 회원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사업에 있어서 회비와 활동을 구분하여 회원 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5. 국제협력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경란
- 위 원 : 권혜순, 김매련, 노길원, 박수선, 이아람

### (2)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형성
- ③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 ④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 (3) 사업계획

- 1) 여성평화형성 캠페인 진행
- 2) AFSC 등과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실시
- 3) 국제화해친우회 주최 국제여성평화운동가협의회 참석
- 4)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개최
- 5)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네트워크 모임 참석
- 6) 영문뉴스레터 발행
- 7) 대안징병제도에 관한 국제워크샵 실시

#### (4) 사업내용

##### 1) 회의 : 2/14, 9/21, 1/10 (3차 진행)

##### 2) 여성평화형성 캠페인 진행

마을 평화회로부터 외교협상의 장까지 International Alert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캠페인으로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평화상을 제정함으로써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2001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25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여성단체와 평화여성회 회원들에게 수백명에게 서명을 받아 International Alert에게 전달하였다.

##### 3) 갈등해결 프로그램

###### ①전문가 훈련: 2월5일-8일, 광주 (참석: 정경란, 박수선)

갈등해결 교재 개발 1차 워크샵

-일시: 2001년 3월 24일-25일

-장소: 대구

-참석: 박수선 국제협력위원

-내용: 이 워크샵에서는 훈련 매뉴얼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 워크샵에서는 갈등해결 이론, 갈등해결 방법론, 진행 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별 발표와 함께 앞으로 교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별첨: 교재 목차)

###### ②갈등해결 미국연수 프로그램

-일시: 5월 23일부터 6월 6일

-참석: 정경란, 박수선

-내용: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방문 연수프로그램, 미국친



우봉사회의 조직으로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훈련생 11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갈등중재관련 기관, 학교, 법원을 방문하고 갈등해결 전문가 교수의 강의와 실습을 받고, 미국 평화활동가와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일정 아래 참조.

-일정

5/23: 도착

5/24: 미국평화연구소 방문 및 환영 리셉션([www.usip.org](http://www.usip.org))

5/25: 공동의 토대 찾기 연구소(Search for Common Ground) 방문 ([www.sfcg.org](http://www.sfcg.org))

다자외교연구소(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방문 ([www.imtd.org](http://www.imtd.org))

5/26: 미국친우봉사회 후임자와 저녁

5/28: 강영진씨와 워크샵

주제 (1) 갈등분석과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 (2) 갈등해결의 분야의 한국사회 도입

5/29 미국중재기관 리졸브(Resolve)방문 ([www.resolve.org](http://www.resolve.org))

미국친우봉사회의 프로그램인 평화촉진프로그램

(Help Increase the Peace)([www.afsc.org/hipp.htm](http://www.afsc.org/hipp.htm))

정의와 평화 아시아태평양센터의 사무총장과 저녁

(Asia-Pacific Center for Justice and Peace) ([www.apcjp.org](http://www.apcjp.org))

5/30: 미국법원의 중재현장 방문

Multi-Door Dispute Resolution Division;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http://www.dchar.org/dsc/resolution.html>)

갈등중재이웃협의회 Neighborhood Association for Conflict Mediation 방문 ([www.nafcm.org](http://www.nafcm.org))

미국친우봉사회 평화네트워크 담당자 발서자 핑구엘 면담 Balthazar Pinguel

미국대학 국제갈등해결교수 모하메드 압부니메르와 간담회

-Mohammed Abu-Nimer, professor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merican University (<http://www.american.edu/manimer/>)

5/31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방문하여 또래 중재 시범 견학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peer mediation)

미국의회의사당 견학

6/1 6월 5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

분석 기술(갈등 동학의 분석, 개념 도구의 개발: Analysis of Conflict Dynamics, Development of Conceptual Tool Boxes) -- 정호원 교수

6/2 팀형성Team Building --프랭크 브레히멘 Frank Blechmen

- 6/3 백악관 앞 평화시위-미사일 방어체제 반대와 조미관계 개선 촉구 시위  
우주공간의 핵화와 무기화에 반대하는 국제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브루스 가그넨과 만남 (Bruce Gagnon)
- 6/4 문제해결워크샵 (Problem Solving Workshop)  
- 크리스토퍼 미첼 교수Christopher Mitchell
- 6/5 대화와 화해 기술 (Dialogue and Narrative Skills)  
- 정호원 교수와 젠얼(Howon Jeong and Jen Muphy)
- 6/6 출발

③갈등해결 교재 개발 2차워크샵

- 일시: 2001년 6월 23일 9시 - 5시
- 장소: 서울 기독교총회 교육원
- 내용: 갈등해결 교재 준비 과정 확인인 목차 결정  
수료식 일정(제책 참조) 및 역할 분담  
수료이후 다음 단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 교환.

④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수료식

- 일시: 2001년 7월 15일 (토) 오후 2시
- 장소: 성가수녀원
- 내용: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수료식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매뉴얼 증정  
향후 계획 논의 및 뒷풀이

4) '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 취지와 목적  
한국의 현행 정병제도와 군복무에 얽힌 불합리한 문제점과 인권침해 실태를 토론하고 그 대안을 탐색한다.
- 일시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 장소 : 과주 흥원 수련원
- 참석 : 50여명
- 준비하는 이들 : 이길현숙, 정경연(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민족회의), 조국(교수), 조용환(변호사), 이태숙(전국군복력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친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태훈(브래드포드대학 박사과정)
- 워크샵 내용  
    <세션1 : 3월 17일 오후2시- 오후6시>

한국의 현행 징병제도와 군복무에 관한 문제점과 인권침해 실태를 토론하고 외국의 사례(대만, 유럽, 라틴아메리카)를 검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회 : 이김현숙(본 회 상임대표)
- 기조발제 :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김창수(민족회의 정책실장)
- 토론 :  
징병제 실태와 병무비리 / 김종대, 김삼석(군사평론가)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 회장)  
양심적 병역거부 / 조국(동국대 교수)
- 휴식
- 토론  
병역미필 피해자·여성과 장애인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군대피해실태조사 보고 / 최정민(평화인원연대)  
군대내 성폭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세션 2 : 3월 17일(토) 오후 7시~10시>

- 외국사례 경험 나누기 : 각 15분씩, 순차통역
- 사회 :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내용

대만경험

유럽경험

라틴아메리카 경험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세션 3 : 3월 18일(일) 오전 9시~12시>

- 사회 :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 내용 :  
유엔관련 / 이대훈(브래드포드대학 박사과정)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세션 4 : 3월 18일(일) 오후 1시반~4시>

- 사회 : 이김현숙(본 회 상임대표)
- 전략토론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5) 국제화해천우회(IFOR) 대륙간 협의회 참가

- 일시: 3월 26일~4월 1일

· 장소: 네덜란드 소에스버그

· 참가: 정경란

· 내용 : 국제화해협의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여성평화활동가 프로그램의 4차 국제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이전의 3차례에 걸친 지역협의회,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협의회를 토대로 각 지역의 여성평화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수립의 장애물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개발하고, 여성평화활동가들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 유고슬라비아,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짐바브웨, 수단, 차드에서 12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모임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 모임에서 인도 참가자는 아시아 지역의 협의회를 국제화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평화여성회가 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제화해협의회의는 여성평화활동가 프로그램을 네덜란드 정부 산하 개발과 협동부의 여성개발처(the Women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the Netherlands Ministr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다음 단계의 지원을 위해 여성개발처에 프로젝트를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 6) 렌달 캐슬라인 포스버그와의 간담회

· 일시: 6월 29일 금 3시~6시

· 장소: 참여연대 강당

· 내용: 렌달 포스버그의 “어떻게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막을 것인가” 강연과 함께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경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동북아 민중의 연대를 통한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 7) 2001국제여성인권세미나 <군사주의와 여성> 참석

· 주최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 주관 :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 일시 : 2001년 7월 27일 오후3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내용 :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여성과 어린이의 안전보장/ 민족담론과 여성인권의 긴장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참석: 정경란, 김영리

#### 8) 정병재관련 대체복무제도 시행 현장 방문

· 일시: 7월 8일-12일

· 장소: 대만

- 참가: 이길현숙 대표
- 내용: 대만 평화단체 방문과 대체복무제도 실태 파악

#### 9) 대만 평화활동가와 한국의 평화단체와의 간담회

- 일시: 8월 6일
- 장소: 이대 문화관
- 참가: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내용: 대만 평화활동가와 대학생에게 한국의 상황과 평화단체의 활동을 소개

#### 10) 만년평화 국제연대활동

9.11 미국의 테러사태이후 촉발된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연대 성명서, 평화촉지 보내기, 전쟁반대 여성활동을 영문으로 작성해 국제평화단체에 보내는 등 국제연대활동 진행

IPB, WILPF,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FSC,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마바라 윈, International Action Center, Women and Life on the Earth 등에서 이 활동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리스트에 배포.

#### 11) 미 군축전문가 본 회 방문 및 환담

- 일시: 7월 26일 오후 3시
- 방문자: 노만 레빈(Norman D. Levin)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operation)의 선임연구원과 한용섭 국방대학원 교수
- 참석자: 이길현숙 상임대표,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내용: 노만 레빈 연구원과 한용섭 교수는 한국 평화단체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단체를 방문하며 평화단체의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평화여성회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12) 제4차 민중의 유엔대회 및 페루지아-아시시 평화행진 참석

- 일시: 2001년 10월 9일-13일
- 장소: 이탈리아 카사, 페루지아 및 아시시
- 참석: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내용:

① ‘올브리아 민중을 만나다’ 프로그램

-10월 9일 제4차 민중의 유엔대회를 조직한 올브리아 지방의 카샤(Casha)시 시장 방문 및 부시장과 인사 및 대화

-10월 10일 카샤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등학교 2학년까지 200명 학생들에게 한반도 분단과 평화운동에 대해 강연

② 제4차 민중의 유엔대회

-10월 11일-13일 페루지아에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국제시민사회와 유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대회에 세계 각국에서 온 ngo 활동가들 포함 1500명 참석

-레이그 세계평화회의의 UN 밀레니엄 포럼,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제노바 세계사회포럼 등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사회진영과 지역공동체 사이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초청해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한편 공동의제를 개발해 아래로부터 세계화 네트워크를 추구

③ 페루지아-아시시 평화행진

-10월 14일 20만명이 페루지아에서 아시시까지 평화,평등,태평을 추구하고 평화행진

④본 회를 비롯한 36개단체 공동성명서 영역본 배포와 한국반전평화운동 상황 발표

13) 토워 힌 미국 알버타 대학 교수와 간담회

· 일시: 2002년 11월 16일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토워 힌 교수, 강승원 교수,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내용: 평화여성회의 활동 및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소개

14)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심리학회에서 주는 “평화의 문화상” 수상 관련한 연대 활동

미국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심리학회(Psycholog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주는 “평화문화의 상(Culture of Peace Award)”을 평화여성회에서 수상하였다. 이 상은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8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지원활동을 하였다.

15) 미션행사일 : 영문 뉴스레터 등 관련 활동

#### (4) 성과와 과제

##### 1) 성과

① email을 통한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반전평화운동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 제시:  
email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비롯해 36개 단체의 전쟁 반대 공동성명서를 영문으로 발송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등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국제평화단체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에 전달했다.

② 국제시민사회에서 평화여성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다.  
IPB, WILPF,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FSC,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바바라 윈(USIP), International Action Center, Women and Life on the Earth 등 국제 평화단체들이 평화여성회의 반전평화활동을 자신의 홈페이지, 이메일 리스트 또는 소식지에 게재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심리학회(Psycholog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주는 “평화문화의 상(Culture of Peace Award)”을 본 회가 받는 등 국제시민사회에서 본 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활동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③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및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국제화해친우회(IFOR) 대륙간 협의회 및 제4차 민중의 유연대회에 참가를 통해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하고 한국여성과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등 국제평화운동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의 폭을 확대하였다.

④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및 징병제 대안에 대한 국제회의를 조직해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대체복무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이 문제를 여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본회에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방법과 경험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⑥ 해외 평화운동가, 평화교육자 등과 간담회 개최나 참석을 통해 국내외 활동가들과 관계 개선.

## 2) 과제

① 한국 사회의 평화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평화운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문 브루서, 영문 홈페이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② 국제 (여성)평화운동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회원 및 한국시민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국제협력위원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지속적인 인력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사무국내에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1) 연구원 구성

#### ① 이사회

- 이사장 : 김윤옥
- 이 사 : 박분미, 윤명애, 이문우, 정현택, 최만자, 최영실

#### ② 원 장: 정현택

#### ③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귀옥
- 연구·편집위원: 정현택, 김현미, 윤덕희, 이금순, 김귀옥, 박현선, 강남석
- 자문위원: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강정구, 고병현, 이삼열

### (2) 사업내용

#### 1) 회의

가. 연구원 편집회의 : 2/9, 3/15, 6/11, 8/9, 11/9 (총 5회 진행)

나. 이사회 회의



2) 국내 외 평화교육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 연구활동  
(통일부 연구용역)

· 연구목적 :

가. 현재 진행중인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적 현실에 부응하는 평화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나. 현행 통일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평화교육과의 결합을 통해 통일시대를 떠나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범주) :

- 국내 민간단체 등의 평화교육 사례분석
- 해외 평화교육 사례분석-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남아공, 북유럽 등
- 현행 통일교육의 내용 및 프로그램 분석
- 통일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서의 평화교육적 요소 도입방안

· 연구기간 : 6. 1(금)-10. 10(수), 4개월간

· 연구자 : 책임연구원- 정현백, 연구원- 김정수, 김엘리, 이병준  
보조연구원- 김화숙, 김소연, 이창원

· 연구내용 :

▷서론

▷현행 통일교육의 내용 및 프로그램 분석(진행: 김정수, 김엘리, 이병준)

-연구방향

현재 진행중인 통일교육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일교육원, 학교,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방향과 내용, 방법, 특징,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연구내용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지침서 분석

학교 통일교육: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현황, 방향과 내용, 방법, 특징 분석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시민단체가 실시한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과 특징을 분석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중 대표적 통일교육 단체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좋은벗들, 정실단통일협회, 남북어린이여개동무, 민족회의 등 중점 분석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의 한계와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화교육적 요소와 현실적 조건 모색

▷국내외의 평화교육 사례분석(진행: 김정수, 김엘리, 이병준)

-연구방향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통일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평화교육 모델을 모색한다.

#### -연구내용

각 민간단체(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실시하는 평화교육의 내용을 청소년(중고등학교)과 일반 성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 등을 검토한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남북이런이러깨동무 등 민간단체 평화교육 사례를 중점 분석)

해외(아일랜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평화교육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 사례의 상황에 대한 개요와 교육프로그램 내용,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한국적 적용방안 모색 등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시된 평화교육의 한계를 짚어보고 한국적 현실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요소를 추출한다.

### ▷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정헌백, 김정수)

#### -연구방향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시사점을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 등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다.

#### -연구내용 :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 ▷ 결론

#### -연구 방법과 절차

##### 1. 문헌연구

- 외국의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문헌조사분석
- 국내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분석

##### 2. 현장조사연구

- 평화교육 담당자 면담 및 전화 인터뷰(시민단체에 한 함)
- 통일교육 담당자 면담 및 전화 인터뷰(시민단체에 한 함)

##### 3. 인터넷 자료 분석

- 국내 평화단체 사이트
- 해외 평화단체 사이트

##### 4. 전문가 간담회

#### -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1. 연구방향 기획회의                           | ■  |    |    |    |
| 2. 이론 검토                               |    | ■  |    |    |
| 3. 국내외 문헌 수집 및 분석                      | ■  | ■  |    |    |
| 4. 국내외 현장 방문과 면담, 관찰                   |    | ■  | ■  |    |
| 5. 연구자 공동회합                            |    |    |    |    |
| 6.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요소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    | ■  | ■  |
| 7. 도입방안 도출을 위한 집중작업<br>(원고집필, 수정 및 보완) |    |    |    | ■  |
| 8. 연구보고서 제출                            |    |    |    | ■  |

### 3) 독일통일과 여성 연구 및 보고포럼(5차 여성평화통일포럼)

#### ① 연구

- 시기: 7월~8월
- 내용: 통일 전 동독여성의 삶과 양태, 통일 후 동독 여성의 일과 삶, 통일 전 동독의 여성조각과 여성운동, 통일 후 동서독 여성운동, 여성정책의 변화 등

#### ② 심포지엄

- 일 시: 2001년 12월12일(수) 오후 2시
- 장 소: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참 석: 통일 평화단체, 여성단체, 평화여성회 회원 외 40명
- 내 용:
  - 사회: 임희숙(한신대 교육학 강사, 본 회 교육위원)
  - 주제발표1. 통일 10년과 여성 삶의 변화-김은영(성균관대 강사)
  - 주제발표2. 통일과 여성운동: 만남과 불화-정현택(본 회 공동대표, 성균관대교수)
  - 토론1. 김경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토론2. 김미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3) 미션행사임

#### 1) 통일 소재자 발간

- ① 방식: 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기타 부분은 여성연합이 담당
- ② 내용: 우리 삶 속의 분단의 피해(김희숙)

통일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박현선)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소외와 그 극복방안(정현백)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정현백)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김귀옥)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윤덕희)

③ 미실행이유: 원고는 모두 들어왔으나 발행과정에서 여성연합의 사무처 사정으로 발행 늦어짐 (최종 원고 검토가 안 됨)

## 2) <여성과 평화> 2호 발간

① 전체방향: 평화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② 발행시기: 8월

③ 내용

특집: 일상에서의 통일 이야기 “내가 만들 통일 세상”

(본회 회원, 초봉, 중고, 대학생/군인/공무원/농부/노동자/전업주부 등

논단: 여성의 통일외식과 평화통일교육 방안(김정수)

평화와 통일의 관계(박순성)

남북여성들의 만남: 차이와 동질성(박현선/ 김귀옥)

대담: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큰 별, 이우경을 말한다(정현백 진행)

시사와 초점

평화·통일현장 답사기/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④ 사업 미실행 이유: 기획이 여러 번 바뀜으로 인해 원고가 아직 안들어 올

## (4) 사업 평가

### 1) 성과

가. 통일부 용역과제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통일교육원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평화교육의 개척자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평화교육의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통일교육에 평화 교육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방식을 통해, 통일교육에 구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나. 에베르트 재단(Ebert-Foundation)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 <독일

통일과 여성>을 통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분단되었던 국가가 급작스런 통일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경험을 여성의 삶과 관련시켜 상세히 검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남한 여성들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짚어볼 수 있었다. 특히 통일이후 독일 여성들이 직면하였던 문제점을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양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정부나 여성운동 모두가 대비할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2) 과제

가. <여성과 평화> 2집 발간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여성과 평화>를 발간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보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내용으로 책을 채워 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다.

나. 작년에 이루어진 <평화교육>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평화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 아일랜드, 독일의 평화교육 수업모델과 수업방법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연구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조사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독일통일과 여성>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은 여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7. 소식지발행팀

### (1) 팀구성

- 팀장 : 홍승희 (팀원: 박수선, 이김현숙, 김은희)

(2) 회의 : 3/2, 3/16, 5/11, 6/22, 10/30, 11/5, 1/10 (총 7회 진행)

### (3) 사업내용

① 봉호 (통권 제12호) : 발행 3월31일 / 발행 부수 800부

| 목차        | 내용                                       | 쪽  | 글쓴이  |
|-----------|------------------------------------------|----|------|
| 통일을 이야기하자 | 통일장정은 신명으로 “우리 다함께”                      | 2  | 홍승희  |
| 이야기마당 1   | 새롭게 다가온 사회적 덕목 “중재” -공존과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     | 5  | 박수선  |
| 초점 1      | 무시결권의 대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 12 | 정연주  |
| 초점 2      | 개정 SOFA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가?                    | 23 | 김용현  |
| 위원회소개     | 평화통일위원회                                  | 30 | 전은주  |
| 이야기마당 2   | 북한여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br>-북한여성을 이해하는 코드 만들기 | 32 | 김귀옥  |
| 함께 나누는 시  | 무엇이 성공인가                                 | 37 |      |
| 인내        | 평화파라 “세상에 모여 평화의 씨를 뿌립시다”                | 38 |      |
| 성명서 1     | 성수생 소장 권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41 |      |
| 성명서 2     | 정부는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43 |      |
| 자료        | 대안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찰 소개                 | 46 | 최연시여 |
|           | 평화여성회 2008년 사업방향                         | 55 | 김화숙  |
| 알림과 나눔    | 3-3월 사업보고 (연대포함)와 4월-6월 사업계획             | 58 |      |
| 회원소식      | 회원소식과, 회비납입현황과 소식                        | 60 |      |

② 여름호 (통권 제13호) : 발행 7월15일 / 발행 부수 800부

| 목차        | 내용                                                       | 쪽  | 글쓴이 |
|-----------|----------------------------------------------------------|----|-----|
| 통일을 이야기하자 |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통일의 여정을                                      | 2  | 김숙임 |
| 이야기마당 1   | 북한여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북한여성의 사회적 활동                        | 6  | 김귀옥 |
| 이야기마당 2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 2- 갈등 속에서 갈등을 배운다                        | 12 | 박수선 |
| 초점        | 머시일 참여제제, 참과 방패의 논리                                      | 28 | 김창수 |
| 이야기마당 3   | 헤이그의 삶, 한 귀퉁이에서                                          | 33 | 김영리 |
| 이야기마당 4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여성과 평화를 위한 환경<br>-국제화해친우회(IEOC) 대륙간협의회 참가기 | 38 | 정경란 |
| 이야기마당 5   | UN에서나 일할 것 같은 순수함의 결정제, 배디                               | 42 | 이연미 |
| 이야기마당 6   |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 45 | 김경화 |
| 위원회 소개    | 평화교육위원회                                                  | 48 | 김화숙 |
| 특집        | 평화파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0 |     |
| 성명서 1     | 한국통신114여성노동자들에 한 폭력행위를 규탄하며<br>114봉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55 |     |
| 성명서 2     | 미국은 미사일발사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58 |     |
| 참고자료 1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 61 |     |
| 참고자료 2    | 원달 캐서린 포스터그와 간담회                                         | 64 |     |
| 알림과 나눔    | 4-6월 사업보고 (연대포함)와 7월-9월 사업계획                             | 58 |     |
| 회원소식      | 회원소식과, 회비납입현황과 소식                                        | 68 |     |

③ 가을호 (통권 제14호) : 발행 11월10일 / 발행 부수 800부

| 목지      | 내용                                                                                                                                                                                                                                                  | 쪽  | 담당   |
|---------|-----------------------------------------------------------------------------------------------------------------------------------------------------------------------------------------------------------------------------------------------------|----|------|
| 잡감      | 테리와 전쟁을 해법을 찾아서                                                                                                                                                                                                                                     | 2  | 이현숙  |
| 특집      | 나로부터 세제로 피지는 평화의 소리<br>- 평화촉자 "우리는 전쟁을 반대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 강주혜<br>- 반전평화 운동 / 전은주<br>- 전쟁, 평화, 여성 / 이김현숙<br>- 참여시대 글(미대사관 앞 1인시위) / 정이신아<br>- 생디에고에서 전하는 9.11이후 / 최금향<br>- 자료 (김영서, 노벨평화상 무시호소문 등)<br>-자료 (9월27일 시민토론회 정경환 원고)<br>-칼럼이 전하는 전쟁 반대. 평화 | 68 |      |
| 이야기마당 1 | 전달의 절친, 전설(새파란)                                                                                                                                                                                                                                     | 3  | 이상훈  |
| 이야기마당 2 | 북한여성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가정 속의 북한여성                                                                                                                                                                                                                       | 6  | 김관옥  |
| 이야기마당 3 | 나누고 싶은 영화소화(가죽영화 AI)                                                                                                                                                                                                                                | 2  | 이인미  |
| 이야기마당 4 | 인형극 "왕왕이와 꿀꿀이" 이진 저런 이야기                                                                                                                                                                                                                            | 4  | 박인혜  |
|         | 임플라워 밤은 길다 (함인201)(극단 완자무늬/작가연출 김태수)                                                                                                                                                                                                                | 2  |      |
| 이야기마당 5 | 여성으로버의 나와 평화                                                                                                                                                                                                                                        | 4  | 인병현  |
| 초점      | 8.15남북포은화- 여성들, 화해와 평화를 살고 오다                                                                                                                                                                                                                       | 3  | 이김현숙 |
|         | 8.15남북여성공동 결의문                                                                                                                                                                                                                                      | 3  |      |
| 알림과 나눔  | 7.30월 사업보고 (연대포럼) 11-12월 사업계획                                                                                                                                                                                                                       | 6  |      |
| 회원마당    | CJON 후원회원 확대 정책인<br>회비납입원활과 소식                                                                                                                                                                                                                      | 3  |      |

④ 겨울호 (통권 제15호) : 발행 2002년 1월말 / 발행 부수 800부 ▶ 2001년 미 발행

| 목차      | 내용                                                                                                                                                                                                                                                                                                                             | 쪽 | 담당  |
|---------|--------------------------------------------------------------------------------------------------------------------------------------------------------------------------------------------------------------------------------------------------------------------------------------------------------------------------------|---|-----|
| 칼럼      |                                                                                                                                                                                                                                                                                                                                |   |     |
| 특집      | <p>나로부터 세제로 퍼지는 평화의 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특집 분석 글 / 강주희</li> <li>- 전쟁과 여성 / 13일토론회 글(정현백-발음)</li> <li>- 전쟁과 난민 그리고 그들의 미래(장희원-발음)</li> <li>- 미국에서의 반전운동 소개 / 최규형(집회 안필)</li> <li>- 매체를 통해본 미국의 말.말.말 (자보란 조사 함)</li> <li>(테러부터 현재까지의 말의 변천 소개)</li> <li>- 아랍관련 서적이나 새롭게 읽은 미국에 대한 서적 소개</li> </ul> |   |     |
| 평화말하기 1 | 엘리우드영화를 통해본 아랍문화(고려대 스페인학과 이정일)<br>아랍영화를 통해 본 아랍의 문화                                                                                                                                                                                                                                                                           |   |     |
| 평화말하기 2 | 갈등해결방식으로 분석한 아프간전쟁과 해법은 (장현진)                                                                                                                                                                                                                                                                                                  |   | 박수선 |
| 이야기마당 1 | 북한여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4<br>-북한의 가부장제, 어떻게 읽고 다른가                                                                                                                                                                                                                                                                                     |   | 김귀옥 |
| 이야기마당 2 | 제4차 UN 연중회의의 참관기                                                                                                                                                                                                                                                                                                               |   | 정경란 |
| 초점      | 2001년 여성과 평화운동 핫 이슈                                                                                                                                                                                                                                                                                                            |   |     |
|         | 여성부 이집현숙 발제문 or 정책협의회 김창수 발제문                                                                                                                                                                                                                                                                                                  |   |     |
| 알림과 나눔  | 11-12월 사업보고 (연대포함) 2002년 사업계획 방향                                                                                                                                                                                                                                                                                               |   |     |
| 회원마당    | CMS 후원회원 확대 캠페인<br>희미납입현황과 소식                                                                                                                                                                                                                                                                                                  |   |     |

#### (4) 소식지 성격

- 회원이 중심이 되는 소식지가 필요하다. (회원의 동향과 회원사진 확보 등)
-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기능
- 회원들 교육기능
- 회원들에게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교류의 목적을 두루 포함한다.
-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 편집에 힘을 써야 한다.

#### (5) 발행

- 형식 : 2002년에는 제간지보 한다. 필요시에는 편지를 쓴다.
- 발행횟수 및 기간 : 3, 6, 9, 12월 초에 발행하도록 한다. 3월은 중순경 발행
- 제작형식 : 신국판을 그대로 유지
- 표지 : 밝고 세련된 분위기의 색을 선택.
- 편집내용 : 여백효과편집, 새로운 실험적 방식도 연구, 글씨크기를 키운다.
- 시 수집(정서를 맑게 해주는) : 이집현숙



- 단선, 병구들 역백 활용

#### (6) 평가

- 성과

소식지의 성격과 발행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기획되었다.

편집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책임성 있게 발행되었다.

- 과제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으므로 이후 관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위원을 보강하고 평화여성회의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소식지 뒷면에 회원가입양식을 추가하여 회원가입 기회를 확대하자.

## <특별사업>

### 1) 평화쪽지날리기 사이버캠페인(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

- 진행 및 실무 : 정책협의회 구성원, 강주희, 정이신아 등
- 기간 : 9월 16일 ~ 현재
- 내용 : 실명제로 반전, 평화의 메시지 글 올리기를 통한 사이버 시위 약 5000여 건의 쪽지를 참여. 1차 쪽지를 미대사관, 2차 청와대에 전달. 평화쪽지 글 유형별 내용 분석, 오마이뉴스 20대 뉴스로 '평화쪽지날리기' 선정
- 진행과정 :
  - 9.11테러가 난 직후 9월 15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테러에 대한 대응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논의, 테러 및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 입장을 모음.
  - 테러사태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테러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반대중 참여캠페인으로 '평화쪽지날리기' 캠페인을 기획
  - 처음에는 1명이 10명한테 알려내고, 또 그 한명 한명이 10명에게 알려내면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하루만에 2천여명이 접속하여 평화운동의 역사로 기록됨.
  - 인터넷뉴스(오마이뉴스)에 의뢰하여 공동기획하여 이후 속도감있고 긴밀하게 연대하여 많은 네티즌들과 일반인들에게 반전평화여론을 확산시킴.

#### · 성과

가. 실명제를 통한 사이버시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2천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글을 남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이 활동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뉴스,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집중보도되었으며 대중평화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음.

나. 이 활동을 계기로 본 회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평화운동단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던 좋은 본보기의 활동이었다.

다. 오프라인에서도 포스터제작, 스티커나눠주기, 종이평화쪽지발기, 단체별 방문하기 등 대중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짜임새있게 전개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 한계 및 과제

가. 사이버사업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 지식부재와 인적네트워크 부재, 실무역량의 부재로 인해 속도감있는 활동 전개,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등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실무역량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나. 본 회 홈페이지 홍보부재로 인해 이용률도 낮아서 본 회의 사이트를 통한 참여도는 부진하였기 때문에 이후 점차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으므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다. 주변편파적인 원인으로 존재하지만 평화쪽지날리기의 후속활동에 대한 전망을 제 때에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반전평화운동이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창조적인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이 늘 요구됨.

· 평화쪽지날리기 캠페인 화면

여러 길 전쟁중지국  
평화의 여정을 추구하는 평화쪽지 이어 날리기

미국과 인구는 지름 줄만한 사할데에 적대 있습니다.

9월 17일, 미국의 모든 참사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모든 젊은 미국사람들에게 영도를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자살하고, 이제 미국과 그 유가족들은 모욕전쟁을 겪고있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의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두  
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영생을 통한 평화  
의 여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셔널 데모비  
미국 통일시대 세계를 향해 영생을 호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평  
화쪽지는 후한연대사관과 함께 그리고 국외에도 보내줄 예정입니다.

공동기획 : 평화로 만드는 사람들 Young Voices

9월 17일, 미국의 모든 참사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모든 젊은 미국사람들에게 영도를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자살합니다. 이제 미국과 그 유가족들은 모욕전쟁을 겪고있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의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두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영생을 통한 평화의 여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9-09-18 오후 09:03

## 2) 평화·통일 여성정책 마련 위한 전문가 포럼 “2002 국제정세와 한반도 운명, 여성”

·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오전 10:00 - 14:30

· 장소 : 서울프라자호텔 난초홀

· 내용 : 사회 - 정현택 / 본 회 공동대표

기조발제 1. 국제정세와 한반도 운명 (백학순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조발제 2. 남북화해 증진과 여성정책 (이집현숙 / 본 회 상임대표)

지정토론 1.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 임윤출(한겨레21 북한전문 기자)

지정토론 2. 김선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이우영(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제토론 참가자 전원

· 평가

가. 긴급하게 제안되고 논의된 사업이긴 하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통일 분야와 여성정책과 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던 의의와 평화·통일분야의 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보였던 자리였다.

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과 미국의 확전론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기적절한 행사였으며 평화·통일분야 여성정책을 여성부에 제시할 수 있었다.

다. 전문가포럼 사업에 대한 정형 마련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정책 개발과 활동방향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력이 요구됨.

## 3)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 ① 여성평화침묵시위

· 일시 : 2001년 9월 20일(목) 정오 - 오후 1시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제단 앞)

· 참여단체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외 40여개 단체

· 내용 : 미국참사와 관련한 희생자 애도, 테러와 보복전쟁 반대, 평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

1. 침묵 : 희생자에 대한 추모

2. 평화를 기원하는 피식

3. 전쟁중지와 평화를 촉구하는 참가자 몸짓

4. 성명서 낭독

② 전쟁반대 여성평화시위

- 일시 : 2001년 10월12일 (금) 오전 11:00-1:00
- 장소 : 탑골공원
- 참여단체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외 23개단체
- 내용 : 미국의 아프간전쟁 반대와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반대활동 등
  1. 어는마당 : 북치기와 대형마고할미 인형 퍼포먼스
  2. 안해경의 노래마당
  3.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을 출범시키며
  4. 국제 단체들의 연대 메시지
  5. 참가자들의 공동 평화의식 - 평화를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추방의식
  6. 선언문 낭독
  7. 다함께 평화의 함성을...

③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개토론회

- 일시 : 2001년 11월 13일(화) 2시~4시 (토론회) / 4시~5시 (행진캠페인)
- 장소 : 종로 성당
- 주최 :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 진행 및 발제내용
 

사회 : 신혜수 대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1. 911테러공격과 미국전쟁의 상황 이해와 정세분석  
박전영 교수 (카톨릭대 국제관계학과)

발제 2. 전쟁과 여성 :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전쟁과 테러, 그리고 평화  
정현택 교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전체 토론  
행진캠페인(종로성당에서 미대사관까지)

④ 전쟁반대 미대사관 앞 1인 릴레이시위

- 일시 : 10월 22일부터 - 11월 16일 / 정오12시~13시
- 장소 :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
- 진행 :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참가단체 중(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기록어머니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전주교여성공동체,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두레방)

#### 4) 평화명상팀

- 활동 방향 및 사업내용
- 방향 : 내적 평화를 통한 평화 심성, 감수성 강화. 그로 인한 평화운동의 발전 모색, 평화운동 그 내용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연구, 획살을 통한 모색
- 목적 : 여성평화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한 모색
  - 평화주의자의 삶과 사고 고취
  - 평화주의적 운동방식 연구
  - 평화여성회의 회원 활성화
  - 타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평화주의 공유와 운동의 내면적 접근, 연대
- 내용 : 평화주의자에 관한 글 보기
  - 평화로운 삶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관찰하기
  - 기존의 명상에 대한 경험과 성찰하기
  - 몸과 마음의 평화 모색
  - 평화운동 방식에 관한 성찰과 개발
  - 평화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나눔과 정리
  - 평화주의자의 평화운동 정립(여성주의적 관점 포함)
- 단계 : 다양한 명상경험자 만나기
  - 우리 안의 명상 경험 나누기
  -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에 관한 공부하기
  - 평화를 위한 개인과 일상의 삶 접근
  - 한국시민사회, 여성과 함께 나눔 평화심성프로그램 개발
- 팀원 : 이나호, 이병희, 유은옥, 박애경, 박현선, 박후임, 문병녀, 김엘리, 김정화, 김현숙, 김현진, 김숙임(그 외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 가능)
- 모임 : 6/21-9/19 의 총 9차 모임 진행

#### <1차-5차 : '움직이는 학교'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6월21일 - 9월19일
- 장소 : 한국문화산업지원센터, 회원의 집
- 지도 : 박성준('움직이는 학교' 프로그램 진행자)
- 내용요약 :
  - 원목명상 기본으로, 촛불과 경채 등으로 집중, 정화, 성찰케 분위기 조성
  - 권위적 관계, 직책... 무게 빼고 만나기 누구쳐 누구님으로

- 애칭 불러 서로에 대한 예쁜 새로운 존재로 만나(예전의 속박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 애칭 만들어 주기- 권위적인 것을 버리고 수평적 관계 형성
- 남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구누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는—”로 자기 존재가 귀 자체가 되어 열심히 듣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당신의 말을 잘 들었다는 느낌이 전달되게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 자기 소개하는 법, 민주적 인간관계 형성하는 것을 배움.
- 온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 - 틱낀한의 ‘마음의 귀로 들어보는 글 mindful listening’ 귀는 크게, 생각은 깊게, 입은 꼭 필요한 말을 사려깊게 하기 훈련 - 잘 듣는 이( good listener)가 되라
- 말을 할 때, 생활나눔이든 뭐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말하기
- 사물과 그 이미지 관찰하여 말하기
- 살아온 이야기, 책 보기, 죽음, 자기 전의 명상, 음식나누기, 설치지 명상 현재의 자기 정체성 말하기, 살아온 이야기, 생활나눔, 음식나눔, 예술시 낭독 호흡명상 (책 읽기와 함께, 틱낀한의 “The Miracle of Mindfulness” 등), 침묵 명상, 죽음명상(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걷는 명상, 촛불명상 등 다양한 주제로 일상에서 명상과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배움
- 소감 및 평가 나누기 :
  - 참여자가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과 아픔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자기 삶의 주인 의식을 갖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참여함.
  - 명상을 생활 속에서 접하는 계기가 됨.
  -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자존감 회복에 좋음, 축축하고 부드러워지는 느낌
  - 평화를 위하여 평화여성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상해보기. 평화명상을 통한 평화명상법의 역할, 평화운동 전망에 대한 과제 생각해보기

## 5) 외부단체 평화, 통일 교육지원 활동

### ①이길현숙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1/15    | 기잡여성신도회 교백편       | 세계화와 여성            |
| 2/8     | YWCA/철원           | 평화와 여성             |
| 2/16-19 | 한국민권재단/인종학술회의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 |
| 3/7     | 영종세브란스병원 재물       | 평화                 |
| 3/15    | 국회조단클럽            | 한반도와 평화            |
| 3/29    | 여성의 평화연합          | 민주적 여성지도력          |
| 4/10    | 경기여고10회동창회        | 여성과 평화-평과 장미-      |
| 5/3     | 수원YWCA            | 여성과 평화-평과 장미-      |
| 5/15    | 여성대학/예일교회         | 평화, 통일, 여성-평과 장미   |
| 5/17    | 이복회               | 평화, 통일, 여성-평과 장미   |
| 5/21    | 창원 여성의 전화         | 여성안보 -평과 장미        |
| 5/22    | 민주평화여성위원회         | 남북여성교육             |
| 5/25    | 서울대학총학생회          | 5.24세계여성평화군축 운동    |
| 6/20    | 전경연               | 그리스도와 세상의 평화       |
| 6/22    | 여성사회교육원/경기지역여성지도자 | 남북차이와 공통점          |
| 6/23    | 기독교교수협의회          | 6.15와 정치개혁         |
| 6/24    | 황원교회              | MO와 평화             |
| 7/1     | 안양여성회             |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
| 8/18    | 인산YWCA            | 평화운동과 여성           |
| 9/25    | 서울여대여성연구소/여성지도자대학 | 전쟁, 평화, 여성         |
| 10/5    | 고양YWCA            |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
| 10/15   | 기잡여성신도회           | 남북여성교육             |
| 10/18   | 국방연구원             | 주적개념유치여부 토론회       |
| 10/18   | 안양YWCA            | 전쟁, 평화, 여성         |
| 11/7    | 민주평화여성위원회         |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여성교육   |
| 11/27   | 수원여성 YWCA         | 한반도평화와 여성          |
| 12/6    | 창원 여성의 전화         | 전쟁과 여성폭력           |
| 12/12   | 황원교회              | 한국사회의 평화운동         |

②정현택 (아래 강의 외 다수: 워킹 미비로 기재 못함)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4/12 | 경기도 여성지도자모임 평화교육 | 여성평화의식과 평화통일운동 |
| 5/22 | 민주평화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과 평화, 통일문제   |



③김숙암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9월18일  | 성남YWCA           | 여성의 평화의식과 통일      |
| 9월24일  | 인족문화교류재단(속초)     |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의 과제 |
| 9월27일  | 안산YWCA           |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
| 10월8일  | 인족문화교류재단(속초)     |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의 과제 |
| 10월9일  | 군포여성민우회          | 여성의 몸으로 평화 만들기    |
| 10월9일  | 안양YWCA           |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
| 10월15일 | 인족문화교류재단(속초)     |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의 과제 |
| 10월17일 | 교육문화복지연구원, 통일교육원 |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
| 12월11일 | 구로 일하는여성의 집      | 일상에서의 평화운동        |

④김정수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9/18 | 성남YWCA | 여성평화운동과 통일외식 |
|      | 안양YWCA | 여성평화운동과 통일외식 |
|      | 안산YWCA | 여성평화운동       |

⑤김귀옥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9/25  | 안산YWCA  | 여성평화운동과 통일관   |
| 10/22 | 통일교육협의회 |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정책 |

⑥이문우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9/27 | 기장여성교회 | 여성과 통일-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

⑦박수선

| 일정      | 주관/장소   | 주제         |
|---------|---------|------------|
| 9/14-16 | 꿈에여성 공감 | 강동해결과 관음훈련 |

## <연대사업>

### 1)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

#### ① 6.15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 일시 : 2001년 6월 14일~16일
- 장소 : 금강산과 그 주변
- 참석 : 윤명선(전 재정조직위원장), 김숙임(공동대표)/ 김귀옥(민화협 정책위원)
- 만난 사람 : 최창숙(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박영희(민화협 책임실무자), 리순희, 김순희(민화협), 박명옥(종태위 부위원장, 조선여성협회), 서옥순(종태위 위원), 최술매(민화협, 수행), 김영숙(여맹, 수행), 리승(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명선옥(여맹중앙위원회 탁아유치원사업부장), /북한여성 15명 이내 참석 중 10명 필참// 해외 김순환(독일,프랑크푸르트), 김정화(제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환영연회: 리승, 명선옥, 김순환, 김정화
- 토론회 수행: 최술매
- 금강산수행: 최술매, 김영숙

· 여성분과 : 분야별 민간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서로를 소개하고(주로 남측), 북측의 비온적 태도로 마무리 됨.(북측의 구조적 특성과 남측의 다양성도 있었지만, 여연 측이라도 논의를 어느 정도라도 하고 들어가는 태도와 준비 부족, 현재 여성교류의 난결과 한계의 지점도 작용), "15일 밤에 이뤄진 부문별 계층별 접촉에서는 남측단체들이 이면저면 제안을 하고 북측에서는 대답을 피하거나 '잘해봅시다'라고 웅담하는 어색한 자리가 이어짐(통일뉴스, '금강산대토론회 결산')"

\*북측 참가자: 최창숙, 박명옥, 박영희, 서옥순, 리순희, 김순희

최창숙씨를 중심으로 대화, 우선 북을 소개함,

북 탁아4만, 유치원2만5천 등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사회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시에 추진한 점을 강조, 역사의 수레의 한 바퀴를 담당, 강성대국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의원 중 21.5%가 여성.

\*남측 참가자: 여연(지은희, 이경숙), 평화여성회(김숙임), 수원여성회(한옥자),

부산여성회(회장), 전여농(윤금순), 반미여성회, 여협(은방희), 통일안보...(고기효), 한국여성지도자연맹(000사무국장), 한국여약사협의회(박정자)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김숙임), 제충번 여성모임(전여농), 지역차원의 교류(한옥자)

\*합제: 김국방위원장 답방 시 여성이 20명이라도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남측에서 요청(북의 순호경위원장도 약속한 바 있음) / 순차적으로 북에서 남의 사정을 아나까 제시해달라. / 여명과 조선여성협회는 단일하지만 남측은 상당히 다른 단체, 지역이라 남과 북의 현실이 차이가 많다(북)/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든가, 여성간의 교류가 필요한가, 여성간의 선언문이 나오든가, 전체가 모인다고 해도 여성간의 특화된 표현 중요, 조그만 것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이경숙)/ 8.15때라도 여성선언이 나오면 좋겠다(지도자OO) / 남북해외여성만남, 8.15결의대회 등/ 지금 뭐라고 딱 말할 수 없고 논의하고 모색하겠음(북)

보통회에서 분과모임, 금강산 등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평화여성회를 소개하고 현재의 우리들의 활동과 입장을 알릴, 선물과 자료도 전달(모임 끝난 뒤 개별적으로)

## ②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보론회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

- 일시 : 2001년 8월 16일(목) 오후 4시
- 장소 : 평양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이김현숙
- 내용 :

### 기조발제

남측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 이김현숙(민화협 여성위원장, 본 회 대표)

북측 : 여성이 북남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자 - 최창숙(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 토론 :

#### <민족자주와 여성>

남측 : 윤금순(통일연대 여성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북측 : 강춘금(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 <민족대단결과 여성>

남측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북측 : 김인옥(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공동결의문 채택>**

남측 : 윤경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회장)

북측 : 최춘금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③ 8.15통일대축전 남북여성 간담회**

· 일시 : 2001년 8월 19일 오후 10시

· 장소 : 평양 고려호텔 회의실

· 참석 : 이길현숙

**남측**

이효재(민화협 고문), 이현숙(민화협 여성위원장, 추진본부 공동여성위원장), 윤금순(통일연대 여성위원장, 추진본부 공동여성위원장), 최영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장), 남인순(한국여성단체인할 사무총장), 손미희(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북측**

최창숙(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박영희(민화협 참사), 서옥선(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한옥선(조선민주여성동맹 부원)

· 내용 : 주제 “남북여성교류의 재개”

사회 : 이현숙(민화협 여성위원장, 추진본부 공동여성위원장)

**남측제안**

이효재 고문이 91년부터 시작해온 남북여성교류의 역사성을 기초로 남북여성교류 재개의 필요성 강조. 남북여성대회 개최에 동의 여부 제언, 시기 논의, 참가규모 등을 논의

**북측 답변**

6.15 금강산 만남과 8.15 평양 만남을 통해 여성들의 교류가 많이 진전되었고, 통일을 위한 뜻목결이 워자. 북한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문제인식이 통일함을 확인. 북한여성대회 개최를 위한 창구 단일화 제안

**④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담방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3월 5일 늦은 1시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진행 : 경과보고, 인사말, 선언문 낭독, 미국 부시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질의 응답

· 참석 : 이길현숙, 정현택, 권은주, 김화숙

## 2) 정병제관련 사업

### ① 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와 대안 모색 워크숍

- 일시 : 3월 17일 오후2시 - 18일 오후5시
- 장소 : 휴원연수원
- 준비팀 : 이김현숙, 정경란,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조용환(변호사), 이혜숙(전국군복역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 전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평화학)
- 참가자 :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군사전문가, 대만 Chien Hsi-Chien의원 등
- 내용 :

|                                                 |                                                                                                                             |
|-------------------------------------------------|-----------------------------------------------------------------------------------------------------------------------------|
| · 기초발제<br>(사회: 이김현숙 본 회 상임대표)                   | <현행 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br>· 김창수(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
| · 패널토의                                          | · Chien Hsi-Chien<br>(Peace Time Foundation in Taiwan총무)<br>· Ricardo Pinzon (Colombia)<br>라틴 아메리카의 양심적 징집거부운동              |
| · 영역별 발제 ①②<br>질의응답 토론<br>(사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군대폭력과 윤의문사><br>· 이혜숙(전국군복역희생자유가족협회)<br>· Mama Hwang (mother's group in Taiwan)                                             |
| · 영역별 발제 ③④<br>질의응답 토론<br>(사회: 정경란 본 회 국제협력위원장) | <영역미결 피해자-여성, 장애인, 군대내성폭력><br>· 정갈자(한국여성민우회)<br><양심적 병역거부, 징집제에 의한 피해실태><br>·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 · 작은 전시                                         | · 김용환(불평등한 소다개정 국민행동)                                                                                                       |
| · 국내외 경험 나누기 및 UN관련법<br>(사회: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국내외 양심적 징집거부 사례 및 한국에서 가<br>놓한 대안발표><br>· 국내 : 김삼석<br>· 국외 : Chien Hsi-Chien, Ricardo Pinzon<br>· UN관련법 : 이대훈(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
| · 대안 및 전략 토론 (사회: 이김현숙 대표)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 ② 정병제관련 대체복무제도 시행 현장(대만) 방문

- 일시 : 7월 8일-12일, 장소: 대만

- 참가 : 이길현숙 대표
- 내용 : 대만 평화단체 방문과 대체복무제도 실태 파악

### 3) 정대협 활동(한국여성학자협의회와 공동주관)

#### ① 상반기 465차 수요시위

일시 : 6월 27일

장소 : 일본대사관 앞

내용 :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1분 발언대, 노래부르기, 문화행사 등

#### ② 하반기 484차 수요시위

일시 : 11월 14일

장소 : 일본대사관 앞

내용 :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1분 발언대, 노래부르기 등

### 4) 무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 각계인사 권의서 발표 기자회견

#### ① 권의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5월 7일(월) 오전10:30~11:30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사회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순서 :

인사말씀 : 강원용(평화포럼 이사장)

참가자 소개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권의서 낭독 :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범 문(좋은벗들 대표)

최영희(내일신문사 사장)

질의응답

#### ② 미국대사 면담

· 일시 : 2001년 5월 7일(월) 오전14:30~15:00

· 장소 : 미국대사관

· 면담자 : Evans J. REVERE 대리 대사

· 한국측 참가자 : 강원용(평화포럼 이사장),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현숙

(본 회 상임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5) 반전평화연대활동

① 전국 553개 단체 미국의 전쟁보복과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일시 : 2001년 9월 27일(목) 11:00 청와대, 미대사관에 공동성명 전달

② 시민사회 대토론회 -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 일시 : 2001년 9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종로 YMCA

· 주최 :

· 내용 :

- '실대한 제국'? 미국의 중동정책과 뉴욕테러 : 이해명(한신대, 국제관계학과)

- 테러 참사에 대한 중동의 시각 : 정상률(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

- 미 테러사태와 한반도 -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 서보혁(평화네트워크 평화문제연구회 회장)

- 국제반전평화운동과 시민사회의 과제 : 정현택(성균관대 교수, 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장)

- 일본군사대국화와 아시아평화를 위한 시민운동 : 이시재(가톨릭대사회학과, 환경문제학회위원장)

-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토론문) : 정경단(본 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③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 일시 : 10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도쿄 동시 기자회견

· 내용 : "미국의 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한다!", 아시아 시민들의 공동 반전평화 행동계획 선언

· 참석 : 이길현숙, 권은주

④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시국선언대회>

· 일시 : 2001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명동카톨릭 회관에서 평화문 프레스센터까지

· 참석 : 이길현숙, 이은하

· 내용 : 국제발언 (노동단체, 농민단체, 빈민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문화예술, 교육단체 등) 및 자유발언, 반전평화시국선언문 발표(청와대, 여야 3당, 비대사관에 전달) 평화대행진(명동에서 프레스센터), 퍼포먼스 및발, 참가단체별 퍼켓선전

#### ⑤ 평화학자 요한 갈통 교수 초청강연

- 일시 : 2001년 10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 동국대 90주년 기념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동국대 북한학과
- 후원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자료 번역: 정이신아)
- 내용 :

#### ⑥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발족 및 공동행동

- 11월 8일(목) 공동실천 발족식 및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오전 11시. 명동성당)
- 11월 9일(금) 가두 서명 및 모금캠페인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시내 중심가)
- 11월 10일(토) 전쟁반대 평화실현 민주사회단체 집회 (오후 3시. 인사동 입구 공연무대)

#### 6) MD저지와 평화군축 공동대책위

- 이길현숙 상임대표가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 전운주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참석

#### ① 보잉사 앞 1인 시위

- 일시 : 2001년 7월 3일(화)-7월 말 /7월 3일 이길현숙 대표 1인 시위 진행
- 장소 : 보잉사 앞

#### ② MD저지 공대위 제2차 워크숍

- 일시 : 2001년 7월 4일(수) 오후 3시 장소 : 좋은벗들
- 내용 : MD제제와 ABM(반도란요격미사일제한협정) 조약 그리고 비러관제, 'MD와 한미동맹'

#### ③ MD 강요! 무기 강매!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7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 내용 : 기자회견 취지 설명(MD 저지 투쟁 보고와 파월 방한 투쟁 일정 보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대국민 호소문,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 후 미대사관과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주최 : MD저지 공대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WTO반대 국민행동, 때향리별대위, 미군기지공대위, 소파개정국민행동

#### ④ 파월 방한 규탄 투쟁

- 일시 : 7월 27일(금) -28일(토) , 장소 : 서울공항, 종로 외
- 내용 : 공항투쟁 및 기자회견, 파월 방한 규탄 결의대회, MD 저지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대회, 외교통상부 장관 공판 앞 집회 및 1인 시위, 파월 숙소 앞 철야 1인 시위, 파월 일정에 따른 동행 투쟁

#### ⑤MD문제 토론회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일시 : 2001년 9월 6일(목) 14:00-16:30 장 소 : 여의도 한국노총 8층 강당

#### ⑥ MD 반대 국제 행동의 날 집회

- 일시 : 2001년 10월 13일(토), 오후 4 : 30~5 : 30 장소 : 명동성당 돌머리
- 주제 : 전쟁 반대! 평화실현!
- 내용 : 미국의 아프간 침략 전쟁과 MD 강행 규탄 연설, 반전평화, 성명서 낭독 등

### 7) 통일교육협의회 활동

① 의장단회의: 이길현숙 본 회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로 활동(의장단회의, 이사회, 총회 참석)

#### ②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 임시회의

- 일시 : 2001년 4월 19일(목)
- 장소 : 민회협 사무실
- 참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 안건 : 각 단체 사업과 정보 공유, 여성분과 2001년 사업 논의 : 통일교육 여성활동가 워크샵, 여성분과 2002년 사업계획 논의 : 여성통일학교(가안), 기타

## 1차 회의

- 일시 : 2001년 6월 21일(목)
- 장소 : 민화협 사무실
- 참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 안건 : 보고, 통일교육협의회 활동 공유, 여성분과위원장 추천 보고, 각 단체 사업과 정보 공유, 여성분과 2001년 사업 : 통일교육 여성활동가 워크샵논의, 여성분과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 2차 회의

- 일시 : 2001년 8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통일교육원(수유리)
- 안건 : 단체활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처, 통일행사 관련 보고, 여성분과위원회 통일교육 실무자 워크샵 내용 검토 및 확정, 기타
- 참가 : 여성분과위원장(김희은 원장), 여성사회교육원(홍혜경 간사), 여성한국사회연구소(홍옥화 통일분과위원장), 통일민주협의회(김명섭 여성국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전은주 평화통일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최성미 조직부국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미현 간사), 한국어신학자협의회(안수경사무국장),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고정명 회장, 김경숙 총무이사), 세계평화여성연합(이필숙 이사)

## ③ 여성분과 내부워크샵

- 일시 : 2001년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통일교육원(수유리)
- 대상 :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참가자
- 내용 : 여성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논의  
여성분과위원회 사업실행에 관한 논의  
소속단체들의 추진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구성원들의 단합을 위한 친목

## ④ 통일교육 여성활동가 워크샵

| 구분  | 내 용                      | 강 사                    |
|-----|--------------------------|------------------------|
| 강연1 | 남북한여성의 사회의식 격차와 통합문화     | 김혜영 (숙명여대 여성학강사)       |
| 강연2 |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갈등해결과관용     |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
| 강연3 | 남북의 여성정책: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정책 | 김귀옥 (경남대 북한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 평가  | 평가간담회                    | 진체철가자                  |

#### 8) 9.11 테러 사태 이후 반전활동에 관한 국제연대

· 한국 36개 여성단체들의 공동성명서(9월 19일) 및 여성계의 반전활동을 영역하여 이를 International Peace Bureau,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 40여개 단체 및 개인에게 E-mail 발송.

· International Peace Bureau,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omen and Environment Network에서 관심 표명하고 우리 성명서를 관련 단체에게 전달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진행하는 전쟁반대 홍보 캠페인 "No More Victim"에 지지 서명을 보냄.

#### 9) 국방장관과의 간담회 및 국방부의 NGO단체 대표의 안보현장 방문프로그램

- 일시 : 2001년 11월2-3일
- 참석 : 김숙임 공동대표 (시민단체 19명 참석)
- 내용 :

##### ① 국방장관과의 간담회

국방현안 및 정책에 대한 설명회 이후 시민단체 대표들의 질문,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짐. 수년간의 여러 단체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국방부의 국방정책, 행정에 대한 생각을 피력함.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개방적 자세와 정보를 요구하고 국방정책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함.

국방부 역사에서 처음으로 NGO와의 공식적인 접촉을 한 행사라는 의미가 있었음. 군대는 국민을 위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최고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있는 만큼 시민의 민주적 요구에 따라 시민단체와 상호보완, 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 ② 안보현장(전방 부대) 방문

방문부대: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CH-47헬기를 타고 부대를 이동하면서 전화를 함, 각 부대의 현황을 청취하고 장

병과의 간담회를 가짐, 강릉의 통일공원을 견학하여 북한이 침투시켰다는 질수 함도 보고, 해군 함정을 견학하고 최근 연평대전에서 북한과 교전을 벌였던 한 국형초계함 고속정을 타고 함상체험도 함. 해군 사병의 부대식당에서 식사를 함 에 하며 군인들의 구타상황, 복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구타신고전화 (4242)가 자동녹음이 되기 때문에 구타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장담함. 방문부대마다 무력증강의 문제와 환경오염,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등의 문 제를 제기함.

\* 행사 이후 국방부의 정훈공보관은 이러한 모임(NGO와의) 을 정례화 할 수 있 도록 국방부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함.

#### 10)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연대

- <군사주의와 여성> 국제회의 워크샵 참가
- 일시 : 2001년 7월 27일 오후3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참석: 정경란, 김엘리
- 내용 :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보장  
민족담론과 여성민권의 긴장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2002년 국제회의(한국에서 개최) 준비활동
- 2002년 국제회의 개최 예정: 준비회의 참석(김엘리)

#### 1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여성위원회 연대

- 본 회 이집현숙 상임대표가 민화협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 2001년 6.15 금강산 남북통일대토론회 시 남북여성간담회 개최: 김숙임,윤명선 참 석
- 815인 여성선언문 발표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로 8.15 평양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이집현숙 본 회 상임대표가 남북여성단장으로 참석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바자회 개최

## <대외 홍보활동관련>

### 인터뷰

- ‘남북한 하나’ EBS TV 2001.2.12
- ‘이우정의 길’ KBS TV 2001.3.16
-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관련 CBS라디오 2001.5.7
-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관련 대구MBC라디오 2001.5.9
- ‘통일운동관련’ 통일교육원 2001.5.23
- ‘보복전쟁은 해답이 아니다’ 여성신문-시론
- ‘평화는통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 우먼타임스-화제의 인물 2001.9.7
- ‘남북여성 통일의 꽃 목에 걸었다’ 여성신문-기획 2001.9.7
- ‘평화쪽지날리기 소개’ CBS라디오 2001.9
- ‘평화쪽지날리기 소개’ KBS라디오 2001.9
- ‘8.15 평양행사 KTV 인터뷰 2001.9.15(22일 방영)
- ‘보복전쟁은 해답이 아니다’ 여성신문-기획 2001.9.18
- ‘반전평화관련’ 오마이뉴스 2001.9.19
- ‘반전평화관련’ 2001.9.25 크리스찬 신문
- ‘전쟁, 여성’ 부산MBC라디오 2001.9.22
- ‘전쟁, 여성, 평화운동’ MBC라디오-MBC초대석, 차인태입니다 2001.9.24
- ‘반전평화운동’ 한겨레신문 2001.9.25
- ‘평화운동 관련’ 마산MBC라디오-라디오광장, 김장자의 역권현장 2001.9.27
- ‘보복이 전부가 아니다, 평화적 외교로 해결하라’ 심마니라이프 2001.10.16
- ‘평화쪽지날리기 및 평화운동’ 대한대일신문 2001.10.17
-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주은World·ThemeSpecial 2001.10.24
- ‘911테러와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 당대비평, 2001.10.25
- ‘TV책을 말한다’ KBS TV, 2001.11.1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민화협여성위 바자회 MBC TV ‘고향은 지금’ 2001.11.23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민화협여성위 바자회 KBS TV ‘6시 내고향’ 2001.11.23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민화협여성위바자회 SBS TV 2001.11.23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민화협여성위바자회 MBC TV ‘고향은 지금’ 2001.11.23

- '여성운동가가 본 2001 여성운동' 시민의신문 제422호 2001.12.24
- '여성네트워크', '한국의 여성단체' 우먼타임스 2002.1.11

## 언론보도기사

- '여성평화통일포럼' 한겨레신문 2001.3.23
- '여성평화아카데미' 한겨레신문 2001.4.
- '남북여성 통일대회 열린다' 한겨레신문-여&남 2001.8.28
- '여성단체 비 보복전쟁 반대' 한겨레-NGO 2001.9.19
- '미국, 너희가 전쟁을 야느냐?' 여자와닷컴-여자와뉴스 2001.9.21
-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여성평화침묵시위, 우먼타임스 2001.9.28
- '전환기 북한여성의 삶' 여성평화아카데미, 시민의신문 2001.10.16
- '국회를 향한 외침-아프간전쟁반대 1인시위' 통일뉴스-포토기사 2001.12.1
- '독일통일과 여성' 토론회 한겨레신문 2001.12.18
- '2002 국제정세 변화, 한반도운명, 여성' 전문가포럼 우먼타임스 2002.1.4
- Newsletter of the Asian Women's Resource Centre for Culture and Theology -뉴스데터 반전시위활동 소개, 2001.10월호
- WILPF 홈페이지에 반전평화관련 성명서 게재, 2001.10월

## 글 게재

- 전쟁반대 미의원 Barbara Lee 지지 공문, 2001.9.18
- '전쟁과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제39호, 2001. 11월호
- '세계반전평화운동', 특집기획기사, 경희대ngo대학원신문, 2001. 11.
- '반전평화운동의 목소리를 전하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보 제2호, 2001. 11
- '반전과 테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성협 2001.11월호



## 2002년 사업계획안

----- 사업방향

----- 각 위원회 사업계획

----- 공동사업 및 월별사업계획





# 1. 사업방향

## 1. 사업목표 : 반전평화 행동과 평화문화의 확산

## 2. 사업취지와 기초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해에 이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부시대통령의 선택이 전 세계를 또 다시 폭력과 긴장으로 몰고 있다. 이는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확전론으로 인한 위기감 조성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더욱 예외일 수 없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반전평화 행동의 전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유연하고 다양한 평화통일운동의 자세와 함께 평화적 감수성과 상생적 삶의 지혜를 요구한다. 2002년은 월드컵경기 개최,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 등에서 요구되는 국민들의 평화의식과 통일의식의 고양은 남러평등사회와 평화로운 민주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는 올해의 사업목표를 '반전평화 행동과 평화문화의 확산'으로 정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기조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1) 반전평화운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의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상호평화공존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 2)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문화 형성과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을 활성화한다.
- 3)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4) 선거국면을 맞이하여 현시기에 필요한 대안적 평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활동에서 표명되는 평화와 통일정책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한다.
- 5) 여성평화운동의 확산과 강화를 위하여 대중적인 조직기반과 자립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한다.

### 3. 사업내용의 주요방향

#### 1) 전쟁반대를 위한 평화행동

- (1) 세제적으로 고조되는 폭력적인 갈등과 전쟁분위기 조성을 평화적 상생의 구도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을 전개한다.
- (2) 포섭이나 토론회, 사이버공간 등을 통해 확대되는 전쟁의 위험성과 반전의 필요성을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알려감으로써 평화의식을 확산하고, 정부와 미국, 유엔의 국제활동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 (3)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테러법의 강화, 부시의 군사외교전략,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평화단체와 연대하면서 사안별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 2) 평화문화 확산

- (1)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생활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2) 북한 어린이와 전쟁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저금통을 마련하여 작은 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도모한다.
- (3) 평화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평화인형극 공연과 갈등과 분단현장 평화기행, 평화영상, 평화노래 보급 등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 (4) 일년을 마감하면서 평화통일사업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여 평화 통일관련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운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 (1)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평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실시한다.
- (2) 갈등해결팀의 정기적인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평화교육 내용과 매뉴얼을 개

발하고 이를 보급한다.

(3) 통일소재자를 발간하여 대중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평화통일교육의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조직하여 강사병역사업을 강화시킨다.

#### 4) 남북여성교류사업의 활성화

(1) (가정)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사와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5)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1) 조직강화를 위한 회원배가사업으로 1000명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소모임, 회원캠프를 통해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평화통일운동의 일상적 실천을 도모한다.

(2)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 발굴과 남성후원회원, 협력회원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

(3) 신입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간의 관계를 깊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4)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여성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6) 여성평화운동의 자립화

(1)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초도대로서 회원결속력과 상호만족도, 조직에 대한 애정 등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힘쓴다.

(2) CMS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고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후원회, 기획행사 등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3) 창립 5주년 기념 평화과제를 알차고 성과있게 개최한다.

#### 7)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1)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을 제시하고, 당면한 선거국면에서 평화통일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평화감시단 활동을 진행한다.

(2) 정세대를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평화운동 이론과 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을 높인다.

#### **8) 홍보활동 강화**

(1) 소식지, 브로셔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신속한 정보교류와 확산에 힘쓰고, 다양한 평화주제들을 여론화시킨다

(2) 언론매체홍보활동 및 기자회견의 간단회 등을 통하여 본 회가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홍보하고 공론화한다.

#### **9) 평화운동연대의 네트워크 강화**

(1) 평화운동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여성, 평화, 통일, 국제 등 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연대체를 조직하여 평화운동의 파급력을 높이고, 통일 평화운동의 연대사업 정책과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 II.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 1. 정책기획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열리
- 위원 : 장남식, 김기욱, 김숙임, 김정수, 박수선, 박현선, 이권명희, 이김현숙, 임희숙, 정경란, 홍승희

#### (2) 사업목표

##### 1) 전쟁반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개발 및 정책 제시

- 대시기 요구되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각 위원회 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정
-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나 이렇게 살아보련다’와 같은 대중적 생활지침 개발

##### 2)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 제시

- 김대중대통령 집권기간동안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총 평가
-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
- 여성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정책 논의와 정책 제시

##### 3) 여성평화운동의 정립과 확산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과 정책 구상

- 정책논의와 개발을 위한 원활한 논의구조 형성
  - ㄱ. 정책위원들의 다원적 네트워크 만들기: 각 영역의 전문화, 정보 교류, 논의 심화
  - ㄴ. 남성 정책협력위원 구성: 남성들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의 협력체제 구축.
- 여성평화운동의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과제 토론과 내용 만들기
- 차세대 여성평화활동가의 생산과 청소년, 20-30대 층의 회원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 (3) 사업 내용

- 1) 정기적인 비공식 주제별 정책토론회
- 2) 여성평화통일포럼 의제 개발
- 3) 반전 평화문화확산을 위한 생활지침·일상적 생활에서 평화롭게 살기 개발
- 4) 김대중 정권 평화통일정책 평가서 작성
- 5)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 여성평화통일정책 비판적 검토
- 6) 기타: 정세에 따른 사안별 토론회 개최

## 2. 평화통일사업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홍승희
- 위 원 : 안수경, 이권명희, 고은실, 윤수경

### (2) 사업목표

- ① 민족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사업 전개
- ② 반전 평화운동의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 ③ 회원들의 구체적인 요구분석으로 회원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사업 전개
- ④ 대중사업확대를 통한 위원보강으로 안정적인 논의구조 정착

### (3) 사업내용

#### 1) 여성평화통일포럼

- 일시 : 크게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
- 내용 :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
- 대상 : 평화와 통일관련 단체 활동가 및 회원, 시민사회 연대단체 활동가 및 회원, 전문가 등

#### 2) 평화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팀 운영

#### ㄱ. 인형극사업팀

- 기간 : 주요공휴기간을 설정하여 반전평화운동을 대중프로그램으로 확산하고  
어른화한다.(예, 월드컵, 6.15 2주년, 8.15행사, 9.11테러 1주기, 10.7아프간전쟁)

- 장소 :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집중거점 선정(지역 통일추진과 같은 행사에 결합하는 방법도 모색)
- 구성 : 제작기획단, 공연단, 홍보단, 교육지원단 등
- 내용 : 평화인형극을 통한 반전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중적 의식 확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

#### ㄴ. 사이버사업팀

- 기간 : 연중 내내
- 구성 : 영역별 담당자 구성- 이슈과이팅, 웹진, 커뮤니티, 홍보 등
- 내용 :
  - ▶사이버평화감시단·가칭(선거시기 행동방침)
  - 선거시기 평화와 통일관련 정책제시 활동 및 색깔론 공세 대응활동  
자 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조직하여 감시 및 평가단 활동을 전개
  - ▶평화cell 만들기 캠페인·가칭
  - 일상의 평화 실천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 일상적 평화제침을 마련하여 6.15번개미팅, 8.15번개미팅과 같은 오프라인 행  
동을 병행하여 실천운동을 전개
  - 예) 지역후보 정책공약 이야기 들어보기,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평화  
말하기, 평화아이디 붙이고 나오기, 희망찾기로 건강한 문화확산하기 등
  - ▶여성평화웹진
  - 평화이슈에 대한 기사, 주제별 취재, 반평화사례신고, 커뮤니티 운영 등 여성  
주의시각을 통한 사이버 평화, 통일운동을 전개

#### 3) 8.15 통일사업(연대사업 포함)

- 8.15 행사의 특성 상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운 지점이 있으므로 꼭 독자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전체사업에 부문별 결합이나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의 성과를  
모아내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전체 통일행사에 호응을 맞춘다.
- 예) 평화퍼레이드, 평화걸리리 등

#### 4)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국내활동을 중심으로 반전평화운동의 실천공간으로 활용한다.

#### 5) 평화군축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내연대활동



### 3. 평화교육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임희숙
- 위 원 : 김숙임, 김화숙, 박여경, 최영숙, 김정수

#### (2) 사업목표

- ① 평화·통일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 평화교육 실시
- ②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운동 여성지도력 개발
- ③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 전개

#### (3) 사업내용

##### 1) 여성평화아카데미 2002년 강좌(상, 하반기 2회)

- 시기: 봄, 가을
- 대상: 여성 평화 통일 시민단체활동가, 일반시민 등 총 40여명(기당 20명)
- 방향: 평화 관련 이슈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
- 방식: 강의중심의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

##### 2)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 내용: 평화평상법을 평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하기로 하고, 일상에서의 평화교육,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기로 함.(평화평상 사업계획은 별도)

##### 3) 평화기행(1회)

- 시기: 미정(사무처 사정에 따라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1회 실시)
- 대상: 본회 회원 및 일반인 40명
- 내용: ㉠기행지·관문점  
㉡기행한 내용을 충실히 하기로 함

##### 4) 평화교육 전문가 training 및 여중생캠프

- 시기: 3월~8월
- 대상:

가. 평화교육 전문가 training: 회원 및 일반인, 교사, 갈등해결팀 등 총 10명-20명

나. 여중생캠프: 서울 경기지역의 여중생 30명

· 방법 : 평화교육 전문가 training 워크샵(8회) 진행, →워크샵 결과를 기반으로 여중생 캠프 진행(8월)

### 3-1. 평화명상팀 사업계획

#### (1) 팀구성

· 팀원 : 이낙호, 이명희, 유은옥, 박예경, 박현선, 박후임, 문병녀, 김엘리, 김정화, 김현숙, 김현진, 김숙임(그 외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 가능함)

#### (2) 사업내용

##### 1) 평화명상팀 정기 모임 운영

우리 안의 명상체험 나누기, 다양한 명상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찾아가서 배우기, 명상경험을 자신의 삶과 평화운동에 반영 및 적용하기, 일상의 평화운동 개발하기

##### 2) 평화명상전문요원 훈련과정

월 2회 이상 명상전문가와 함께 명상수련을 하여 자신의 평화운동의 깊이를 더하고 나아가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3)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 실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주부, 일반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심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평화교육의 방식을 시도해 본다.

## 4. 제정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서미숙

· 위 원 : 윤명선, 이유일, 최경원

## (2) 사업목표

- ① 자립재정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을 개발한다.
- ② 2002년 운영비를 재정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③ 재정위원을 보강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 (3) 사업내용

### 1) 창립 5주년 기념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카페

- ① 시기 : 2002년 4월 예정
- ② 대상 : 회원, 후원회원, 평화.통일.여성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
- ③ 내용 : 푸짐한 먹거리(하루호프)와 기증품 판매, 후원자와 기업협찬 확보, 기념품 증정 등

### 2) 2002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상설 작은 바자회 운영

- ① 시기 : 총회 등 집중형사에서
- ② 대상 : 회원, 후원자, 일반 여성 등
- ③ 내용 : 기증품 판매와 확보

### 3) 2002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CMS 회원 모집

- ① 시기 : 수시로
- ② 대상 : 회원, 후원자, 일반 여성 등
- ③ 내용 : 본인 가입과 1회원 모집, 위원과 대표는 3회원 모집 등

### 4) 재정확보와 위원회 강화 프로그램 개발

- ① 시기 : 2002년 위원회 회의
- ② 대상 : 재정위원, 회원 등
- ③ 내용 : 학습과 친목을 통한 재정사업 고민과 후원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4) 사업일정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평화파괴    | 준비 |    | 진행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작은 바자회  | 진행 |    |    |        | 점검 |    | 진행 |    |     | 점검     |     |    |
|         |    |    |    |        |    |    |    |    |     |        |     |    |
| CMS회원가입 | 진행 |    |    |        | 점검 |    | 진행 |    |     | 점검     |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개발  |    |    |    | 재정위나들이 |    |    |    |    |     | 재정위나들이 |     |    |

## 5. 국제협력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경란
- 위원 : 권혜순, 김대련, 노길렬, 박수선, 이아람, 장이신아, 이선희

### (2) 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강화
- ③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강화
- ④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 (3) 사업내용

#### 1)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관련 국제연대

-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국내 활동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활동.

#### 2)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국제회의 연대

- 한국, 필리핀, 미국, 오키나와, 일본의 여성활동가로 구성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East 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미국 여성네트워크는 격년마다 국제회의를 진행해왔으며 2002년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그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일정은 2002년 8월 13일-15일 (준비회의와 현장 방문, 참여 등), 8월

16일 -19일 (본회의)이다. 이 국제회의는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3) 아셈2002 민간포럼 관련 활동

· 2002년 9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아셈정상회의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Asia-Europe People's Forum'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운동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활동.

### 4) 영문 홍보활동 : 브로셔, 뉴스레터 등

·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국내외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국제평화단체, 여성단체 등과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영문 브로셔, 뉴스레터등을 발행한다.

### 5) 반전평화행동을 위한 국제연대

##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1) 연구원구성

#### ①이사회

- 이사장 : 김운옥
- 이 사 : 박분미, 윤영애, 이문우, 정현백, 최단자, 최영실

#### ②원장 : 정현백, 부원장 : 김귀옥

#### ③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김귀옥
- 연구·편집위원 : 정현백, 김현미, 윤덕희, 이금순, 김귀옥, 박현선, 강남식
- 자문위원: 이우정, 김운옥, 이현숙, 강정구, 고병현, 이삼열

### (2) 사업내용

#### 1) 통일 소재자 배간

- 방 식: 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기타 부분은 여성연합이 담당
- 발행시기: 2월

- 내 용: 우리 삶 속의 본단의 괴해(김화숙)  
통일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박현선)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소외와 그 극복방안(정현택)  
남북공동선언의 실현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정현택)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김귀옥)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윤덕희)
- 진행정도: 내용, 책 디자인 완료 상태, 몇 편의 원고 수정 예정

## 2) <여성과 평화> 2호 발간

- 전체방향: 평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 발간시기: 4월-5월
- 내용

### <특집>

내가 만들 통일 세상 : 이무영(교사)/초동생/장원빈(군인)/강문필(농부)/한성훈(양민학살유가족)/김미미(해외동포)

### <논단>

군사화에 의한 젠더위계체제 강화(오미영)

여성의 평화·통일문제인식(김귀옥)

전쟁과 여성(김엘리)

### <시사와 초점>

최근 교착된 남북관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신준영(민족21편집장)/이현숙(본 회 상임대표)/김현옥(이화여대 겸임교수)

### <평화와 통일 현장 답사기>

9.11 이후 활동기-전은주

아프간 전쟁 취재기-이유진(여자와맛집 PD)

### <문화>

공포, 열기, 그리고 평화(김현미)

열기적인 그녀, 조폭 마누라 영화평(이은하)

### <평화교육>

국내의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 방안(김정수)

###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경실련 통일협회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3) 독일통일과 여성 출판

- 시기: 1월-2월 경

· 내용:

통일 10년과 여성 삶의 변화(김은영/성균관대 강사)

통일과 여성운동: 만남과 불화(정현택/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본회 공동대표)

· 출판처: 성균관대 출판사

#### 4) 연구 사업

· 평화 · 통일 주제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추후 응모할 예정임

## 7. 소식지발행팀

### (1) 팀구성

· 팀장 : 홍승희 (팀원 : 박수선, 이김현숙, 김은희)

### (2) 사업목표

· 정기적 발행을 한다. 년4회 (봄3월,여름6월,가을9월,겨울12월)

· 회원과의 관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한다.

· 위원 보장과 위원회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3) 사업내용

#### 1) 소식지 발행

· 발행 : 봄(3월 초) 여름(6월 초) 가을(9월 초) 겨울(12월 초)

· 발행부수 : 800부

· 성격 : 협진사업진행에 따라 소식지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여, 월간 회원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식지를 여성평화통일자료집의 성격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

#### 2) 한글 브로셔 발행

· 발행 : 3월 말

· 발행부수 : 2,000장

· 내용 : 단죄연대, 단체활동과 소개, 참여 방법 등

#### 4) 소식지 사업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시기 : 년 1회 또는 2회

- 대상 : 회원, 편집위원
- 내용 : 학습 또는 오프터 진행

## 8. 갈등해결팁

### (1) 팀구성

- 팀장 : 박수선
- 팀원 : 김정수, 정경란, 이재영(Korea Anabaptist Center 평화담당간사, EMU 갈등변환 석사과정), 장윤경(전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최현진(평화인권연대 활동가), 김학복(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홍보부장)

### (2) 사업목표

1.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다양한 방법 모색, 실천
2. 소개 프로그램의 확대로 교사들에게 갈등해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적 요구를 높인다.-심화프로그램으로 연결

### (3) 주요 사업

1. 평화교육과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연구
2. 매뉴얼 개발
  - 평화교육의 학교내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대상 워크샵 매뉴얼(입문, 심화 훈련)
  - 학생 대상 매뉴얼
3. 갈등해결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 디자인 및 실행
  - 교사 대상 일반, 심화 훈련 프로그램
  - 본 회 회원 대상 훈련 프로그램



## 2002년 월별 사업계획

| 위원회      | 사업명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정책<br>기획 | 전철반대, 광화문회화<br>산 정책제시 | ----- 먼중 -----  |    |              |    |                 |    |      |      |     |     |        | 평<br>가 |        |
|          | 주제별 정책토론회             | ----- 사인별 ----- |    |              |    |                 |    |      |      |     |     |        |        |        |
|          | 주제별 의제개발              |                 |    |              |    | 행사              |    |      |      |     |     |        |        | 행사     |
| 평화<br>통일 | 여성평화통일포럼              |                 |    |              |    | 행사              |    |      |      |     |     |        | 행사     | 평<br>가 |
|          | 시미비활동                 |                 |    | -----행사----- |    |                 |    |      |      |     |     |        |        |        |
|          | 평화인형극                 |                 |    |              |    |                 |    | 준비   |      | 행사  |     |        |        |        |
|          | 5.24 평화군속 행사          |                 |    |              |    | 행사              |    |      |      |     |     |        |        |        |
|          | 평화통일관련 연대             | -----연대활동-----  |    |              |    |                 |    |      |      |     |     |        |        |        |
| 평화<br>교육 | 여성평화미래카데미             | 준비              | 실외 | 교육           |    |                 |    |      |      | 준비  | 교육  |        | 평<br>가 |        |
|          | 평화기행                  |                 |    |              |    |                 |    | 준비   |      | 기행  |     |        |        |        |
|          | 평화영상                  |                 |    |              | 준비 |                 | 행사 |      | 일상모임 |     |     |        |        |        |
|          | 청소년평화캠프               |                 |    |              | 준비 |                 | 행사 |      |      |     | 준비  | 행사     | 평<br>가 |        |
|          | 전문가TRAINING           | 준비              |    | 행사           |    |                 |    |      |      |     |     |        |        |        |
| 재정       | 평화좌대                  | 준비              |    | 행사           |    |                 |    |      |      |     |     | 평<br>가 |        |        |
|          | 수익사업                  |                 |    |              |    | 준비              |    | 진행   |      |     |     |        |        |        |
|          | 소식지                   | 발행              |    | 발행           |    | 발행              |    | 발행   |      | 발행  |     |        |        |        |
| 국제<br>협력 | 아름다운포럼연대              |                 |    |              |    |                 |    |      |      | 행사  |     |        |        | 평<br>가 |
|          | 국제여성문화운동연대            | -----연대활동-----  |    |              |    |                 |    |      |      |     |     |        |        |        |
|          | 5.24 행사 국제연대          |                 |    | 준비           |    | 행사              |    |      |      |     |     |        |        |        |
|          | 군사주의반대하는<br>한국여성네트워크  |                 |    |              |    | 준비              |    | 국제회의 |      |     |     |        |        |        |
|          | 영문 보고서뉴스레터            |                 |    |              |    |                 |    |      |      |     |     |        |        |        |
| 공동<br>해결 | 교육, 연구                | ----- 연중 -----  |    |              |    |                 |    |      |      |     |     |        | 평<br>가 |        |
|          | 매뉴얼 개발                | ----- 연중 -----  |    |              |    |                 |    |      |      |     |     |        |        |        |
|          | 프레이닝프로그램              | 준비              |    | 행사           |    |                 |    |      |      |     |     |        |        |        |
| 소식지      |                       |                 | 발행 |              |    |                 | 발행 |      |      |     | 발행  |        | 발행     |        |
| 연구원      | 통일관련 소식지              | 진행              |    | 발간           |    |                 |    |      |      |     |     |        | 평<br>가 |        |
|          | 여성과 평화 2호             | 점검              |    | 발행           |    | -----3호 기획----- |    |      |      |     |     |        |        |        |
|          | 특별통일과 여성 해지           | 준비              |    | 발간           |    |                 |    |      |      |     |     |        |        |        |
|          | 연구활동                  | ----- 연구 -----  |    |              |    |                 |    |      |      |     |     |        |        |        |

# 정관개정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세계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임한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윤번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권장 감독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안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개정안 : (삭제)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회의 의결은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감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장 사 무 부 서

####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보 칙

####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법인재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 운영 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임기: 서기,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원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1. 구성: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위원장 선출 및 임기: 각 위원장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1999. 3. 4 개정

2000. 1. 25 1차 개정





임  
금  
기

.....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불수리불복신청 및 위헌여부심판제정신청’ 기각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양승태 목부지원장님

목부지원의 정의롭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사법부의 상징은 저울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저울질 하고 차별 된 것을 바로 잡아 형평을 맞추는 역할에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헌법에는 엄연히 남녀 평등한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계 혈통을 우선하는 잘못된 ‘호주제’가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로는 호주가 이름뿐인 지위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법부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내에서 열등한 존재로 키워져 왔고 사회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호적을 따가지고 시집을 가는 이상 여성들은 피해자이며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에 따른 자녀들의 고통 또한 대물림을 하며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절반인 여성을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을 앞장서서 올바르게 고쳐야 할 것임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땅의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도 잘못된 호주제의 후진성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에 대해 공감하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0년 9월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 단체연합’ ‘한국여성 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을 포함한 114개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호주제폐지에 관한 국회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8명의 신청인이 남편(또는 남편 자신)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해달라는 호주변경신청고를, 7명의 이혼여성인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해 달라는 입적신청고를 하였으나 각 관할구청으로부터 불수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귀 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1995년에 동성동본혼규정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

를심판 제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권지한 고려와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존경하는 양승태 지원장님

법관은 하늘이 낸 자리라고 합니다. 별마기처럼 어렵고 힘든 갈고 닦음의 공덕과 하늘이 낸 복덕이 있어야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실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북부 지원'의 결정만이 이번 소송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부지원에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법조항이 '보편 타당하고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과 존중의 법'으로 재해석 되기를 '호주제폐지시민연대'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선진적인 판결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1. 2. 16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연합,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29 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성폭력에방치로선다,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황교유을위한전국학부모모임,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외교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협회, 한국여학사협회, 대한조선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천문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유니스트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다한국연합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대한약사회약학사회, 우리웃음회, 한국적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합한국본부, 대한영양사회, 국제여성술공연합, 대한치과위생사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피해여교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한국여성경보인협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생활공동체협회,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주부전문인클럽, 한미몬테소리협회, 한국예절문화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권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

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캐나다한인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4 단체)

간사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성추행 소장 전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월, 사단장 신분의 육군 김소장이 99년부터 무하 여장교를 성추행하였던 사건이 밝혀지고, 성추행 사단장에 대한 징계와 항고, 항고기각으로 이어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지난 6일, 문제의 당사자인 김소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뒤늦게나마 김소장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김소장이 전역하게 된 결과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비록 자원의 형태이기는 하나 김소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김소장의 항고를 기각한 국방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징계제이기는 하나 진상을 조사하고 김소장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한 육군의 결정은 군대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화함으로써 크나큰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는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이종위의 용기있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위는 오히려 그동안 근거없는 소문과 비난에 시달려왔다. 우리는 이종위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종위에게 많은 격려가 보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김소장 개인 차원으로 일단락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행해져왔던 군대내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앞으로 군대내에서 그 규모와 역할이 많아질 여군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군대는 이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방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군대내부 인사와 함께 군 외부의 전문가, 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군대내 성폭력을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에는 군대 내부와 외부의 인사가 동시에 참여하여야 하며 여성이 40%이상의 비율로 참가해야 한다.
3.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군대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001. 3. 7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정부는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공작용 헬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군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차세대전투기 사업(소위 'FX'사업)에 약 4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후보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K, 러시아의 수호이 37, 프랑스의 라팔, EU의 유로 파이터 2000 등 네 가지 기종을 두고 2001년 9월경 최종 기종선택을 위해 현재 각 기종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이정민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중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바 미 국무장관이 미 보잉사를 대신해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01년 2월 20일 이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다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 최근 미 보잉사의 다니얼스 수석 부사장이 한국의 3군 총장을 면담하고 F-15K 판매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종선택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과 미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현 시점에서 군사력증강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효율성이 여전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국민들이 이 땅에 평화와 정착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서로 줄임으로써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혹시라도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미국 의 구매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간의 남북관계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미국의 통의를 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F-15K 구매와 연계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이다.

셋째, 이 사업이 미국의 외핵예정 전투기 강대공작과의 관련성 여부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기종인 미 보잉사의 F-15K가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인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각년부터 자신들의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으로 F-15 시리즈를 대체하는 F-22 생산을 확정하였으며, 보잉사와 록히드사에서는 이미 F-22 공동생산 시제품이 출하되어 대량

생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이미 보잉사가 제작한 자체 홈페이지(www.boeing.com)에 공개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2001년 2월 1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나토사령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비용이 다소 클더라도 무기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F-22의 배치 를 합리화하였다는 데, 이는 이미 미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이 F-22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미 F-15가 미국에서는 퇴역예정 전투기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강대사업과 관련한 의도이다. 미국은 낮은 기종을 소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고 처분하듯 팔아넘기고 자신들은 성능이 월등한 새로운 기종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동맹국내에서의 주-종관계를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미 1980년대 F-5기 선정과정과 1990년대 F-16기 선정과정에서도 되풀이되었던 일이다.

지난 1982년 한국에서 생산된 F-5기는 당시 최신예전투기로 각광받던 F-16기의 면허생산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의 계획을,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F-5를 한국공군의 주요기종으로 채택하였다. 이 F-5는 미국 공군조차 한번도 주요기종으로 채택한 적이 없던 전투기이다. 이 뿐만 아니라 1995년 한국은 미국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F-16을 면허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 또한 F-5기 도입과정처럼 미국의 퇴역예정전투기를 주요기종으로 선택하여 돈만 벌아 주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과 미국 행정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군비증강사업(차세대전투기)을 중단하라!
2.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하라!
3. 미국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강제적인 구매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3월 12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평화네트워킹 · (사)좋은벗들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지금 부시정권의 NMD·TMD 구축 강행으로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참예한 군사적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MD와 T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상에 따른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TMD에 맞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현예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쟁과 진영간의 대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잠재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NMD·TMD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권이 NMD·TMD 체계 구축을 강행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우주의 군사적 선점을 통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 또한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세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부시정권은 NMD·T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판적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부시정권은 남한 정부에 NMD 저지 및 TMD 참여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냉전주의적 태도는 분단 이후 초유의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과 대결을 야기하고 있다. NMD·T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질릴 수 없는 이유는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다시 강요하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참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기아와 빈곤, 질병과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세계를 또 다시 양분시켜 진영간의 대립을 불러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NMD와 TMD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평화 염원과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안고 지금부터 NMD·TMD 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시정권의 주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모든 비정부기구와 개별 인사들에게 이념과 성전, 지역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내외 평화애호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기필코 NMD·TMD를 저지하고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

2001년 4월 9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우리가 본 스타워즈 '에피소드 I'으로 축하합니다 —

귀하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의 21세기 첫 지도자로서 백악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려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때 가졌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우려들 가운데 한 가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귀하가 가장 존경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무모한 스타워즈 구상이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는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당신의 전임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엔이 선포한 평화문화의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하고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전세계를 불탄지 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더 강력하고 대규모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공언하고 있는 모습에서 귀하의 이름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귀하는 우리에게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격려 메시지는커녕 우려를 표명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섭섭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문과 우려에 먼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귀 정부는 북한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미국 군사비의 10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 동결과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에 신의 있지 나온다면 귀 정부가 우려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냉전시대에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북한과의 협상 체계를 꺾리는 것도 그 불안 공황에 만들어 놓은 '북한 위협론'이 사라짐으로써 스타워즈

구상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북한과의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혹시 다른 명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NMD와 TMD가 북한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귀 정부가 냉전시대 속적이었던 러시아와 당신이 ‘전략적 경쟁자’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NMD와 TMD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면 총알로 총알 맞추기만큼 어렵다는 NMD와 TMD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아무리 공들여 미사일 방패를 만들더라도 이는 곧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 방패를 뚫는 무기는 비단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여야 할 수 천억 달러의 돈과 과학기술이 파괴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될 때, 귀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위협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귀 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씻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민과 전세계 인류에게 NMD와 TMD 종단을 약속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를 출산 수병하여 폐기함으로써 세계인들의 평화 염원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전세계 인류는 당신의 이름을 ‘평화’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NMD와 TMD를 강행하고 여기에 동맹국들의 참여 요구 및 부당한 무기 구매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한국인들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NMD와 TMD를 하루라도 빨리 종단하고 세계 평화 조성에 동참하느냐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 귀하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미국 내 양심세력과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기어코 ‘스타워즈’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국인은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과 손잡고 당신의 NMD·TMD 구축 기도를 허망한 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2001년 4월 9일

### NMD · TMD 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정실연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민사회연대,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사부금송노련, 사회진보연대, 소과개정국민행동, 실천승가회, 우리땅이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 21세기진보학생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 전국민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빛들,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학생생동연대, 한국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 남북한 정치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지난 1년간의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우리에게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가 중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노력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NMD-TMD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꺼리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NMD와 TMD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강대국들 사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큰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NMD와 TMD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국제적 수준의 냉전을 되불러오고 있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으며,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게 만들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차원, 특히 냉전시대의 유산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한반도 역시 이러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NMD와 TMD가 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국제 정세 변화는 남북한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NMD와 TMD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TMD에 불참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물인 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기는 사들이면서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우리 돈 들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변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격체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고성능 위성, 지상 레이더 기지,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 등이 필요한데,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정보 수집 및 지휘통제 기능은 주로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TMD 관련 무기 도입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에 휘말리고 나아가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동안 NMD와 TMD를 분리해서 접근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해서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온  
음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부시의 이러한 포섭전략에 휘둘리지 않  
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와 관련된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  
다.

또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도입 계획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에 대해 보다 차주적인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김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저스'할 수 없는 대세  
'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돈을 줄여 실업, 빈  
곤, 질병, 환경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세에 역행하는 무기도입  
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최근  
남북한의 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지면서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등 안팎의 상황이 어  
려움에 처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는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통일실현 외에는 어떠  
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  
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김 위원장님이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특  
적으로 하여금 심각한 전쟁 공포증을 야기하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시정권의 NMD·TMD 역시 한반도에 평화와 정착되면 그 명분이 약화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지지와 협력은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  
은 우리에게 단순히 민족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는 곧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세계사적 실험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  
하며, 우리 민족의 한 쪽(북)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활하려고 하는 냉전의 망령을

거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바로 인류 공동선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민족적, 전 인류적 의의와 이해를 잘 헤아리셔서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2001년 4월 9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인사회연대,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범민련남측본부, 보건복지단체대표자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금융노련,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실천승가회, 우리땅미군기지퇴각기전국공동대책위, 21세기전보학생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련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 이상 40개 단체



##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철회와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계 입장-

지난 2000년 6월, 한반도는 남북한 두 정상의 공동선언으로 억압과 분단의 20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미 부시 정권 수립 이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모처럼 형성된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제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어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명분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보호, 세계 평화, 북한을 비롯한 소위 "상대국가들의 미사일과 핵 위협 방어"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우는 '방어체계'란 실제로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자국만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세기 냉전 해체로 위기감에 빠졌던 미국 내 군산복합체에게 어마어마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무기시장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주변국가로 하여금 원문화적인 무기 구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무한정한 군비경쟁을 불러옴으로써 또다시 세계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막대한 군비는 결국 인류복지에 위한 비용을 감아먹고 특히 여성복지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세기 여성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초래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시켜왔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인류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자원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무기에 쓰여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군비경쟁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점에서 우리들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제다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삼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동북아 전체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신냉전 체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은 2003년까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 한반도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첫 실험장으로 삼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전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핵무기 폐지와 군사주의 등에 대항하여 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5월 24일. 오늘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강행을 보면서 평화를 향한 실천에 함께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안보를 염원하는 여성들은 미국의 NMD/TMD 강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힘의 외교'에 기반한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우리의 입장-**

1. 여성의 힘으로 미사일방어체제 저지하자!
1. 평화위협, 군비확산,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즉각 중단하라!
1. 한반도 긴장고조, 신냉전 초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한다!
1. 미국은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북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1.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01년 5월 24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여성촉구대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세계상유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여성사회교육원/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긴급 성명서 >

## 114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한국통신 114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114 분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의 '한국통신 사측의 114 파업조합원에 대한 폭행 사건 경위와 현황' 보고서를 접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더 이상 과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농성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통신은 폭력 사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폭행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신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5월 31일 청원경찰 및 한국통신 관리자에 의해 다수가 폭행을 당하여 25명의 조합원이 전치 2주에서 4주까지 나오는 부상을 당하였다. 지난 4월 19일 대전변호인내국을 방문한 노조 여성간부들을 관리자가 폭행한 이래 결국 31일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통해 114분사를 관철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에서 2000년 노사합의 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114분사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까지도 성실한 노사협의 없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한국통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련의 폭력사태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더 이상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그리고 114분사 등 일방적인 인원감축을 철회하고 성실한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한국통신의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조속히 실시하고, 공기업의 일방적인 인원감축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라.

우리는 5월 31일 폭력현장에 800여명의 경찰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112 신고를 받고도 신속하게 폭력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의 수준인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공기업에서 이러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급변 한국통신의 폭력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폭력에 대한 방조 행위이며 또한 정부가 폭력까지 동원하여 공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인원감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기업의 일방적인 인원 감축과 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집단해고의 대상이 된 한국통신 사안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통신과 정부가 급변 폭력 사태 및 일방적인 114분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1. 6. 4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외교화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 공 통 보 도 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하여 2001년 6월 15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본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북측에서 여러 정당들과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집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대표 200여명과 남측에서 7대중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의 대표자 및 각계각층에서 450여명, 해외 각 지역 동포대표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의의 깊은 전 민족적인 회합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6.15 공동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 이행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한결같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남북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6.15 공동선언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세 세기에 우리 민족이 온전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공동강령, 공동 이정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당부로 되어 조국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적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다져 나가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민족의 염원에 맞게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6.15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떠밀고 나가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이 되는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하였다.

2001년 6월 15일

금 강 산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465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짓밟힌 여성들의 실추된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및 전세계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요즘, 지난 3월29일 이후 왜곡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점령 승인과 뒤이은 학자 및 정치인들의 망언 등 연이은 사태는 접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지난 5월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 요미우리가 사실을 통해 한국정부가 일본에 전달한 일본 교과서 수정요구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격만학장의 자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군사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보기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절저한 자기 성찰과 비판 위에서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망언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아주 지역 준비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배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가 정의를 위해 해결되고, 반동적인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일본사회에 역사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 아시아 피해국들, 양심적인 일본인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3.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군사화의 야욕을 버려라.
4. 일본정부는 침략사실 왜곡하는 역사 교과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6월 27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여성신학동아리연합회  
제465차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성원로들의 입장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여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한 산고 끝에 나온 개정이라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료,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의 사회분담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회적 제원의 미흡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 개인과 한 가정의 책임으로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상임위원회의 개정안은 여성노동제의 요구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여성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는 남아 있는 과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속에서 통과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높이는 대전환점이 될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 6. 29

이효재 윤정옥 이우정 조희순 박영숙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815 여성선언

반세기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우리 여성들은 21세기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작년 남북 두 정상간에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지를 받아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앞장서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1.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분단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여성들이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다. 이에 여성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선언의 빛나는 정신을 앞세우고 누구보다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 우리 여성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정책)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시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그 동안 민족 분단으로 인해 초래된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군사문화와 이와 결부된 가부장제 문화를 이 사회에서 쫓아내고 대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 화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4. 우리는 그간 여성 통일운동이 진행해온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족이 대단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해의 여성들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1년 8월 15일

2001민족통일대축전 추진본부 여성위원회 선언 참가자 일동

## 2001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 공동결의문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의 가치 높이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새 세기 첫 해 광복절인 8.15에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민족자주선언, 통일선언, 대단결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실현을 다시 논증하고 그 실현을 위한 남과 북, 해외 여성들의 과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실현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여성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확고히 지지고수하며 그 실현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성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와 분기점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인 문건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더 철저히 실현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남과 북, 해외 여성들의 단합된 힘으로 안락의 도전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하며 21세기 첫해인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2. 우리 여성들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광범하게 벌려 나갈 것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지키는 길에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전제조건이 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권리와 이익,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세력들과 투쟁해야 한다. 우리들은 6.15 이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외세의 간섭과 전쟁위험을 종식시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외세의 범죄를 철저히 결산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기도도 반대한다. 또한 우리들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한 강한 분노와 반대를

표하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 여성들은 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서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여성들과 서로 힘을 합치고 단합하며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며 통일을 바라는 여성들이라면 단체 소속을 가르기에 앞서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공동의 이념적 기초로 하여 뜻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속에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우리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을 높이 들고 민족 주체적 힘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조국통일 만세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도론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8월 16일

평 양

## 8.15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방북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하기 위해서 관용하는 사회분위가 조성해야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대표단 340명이 민간 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확대하고 실천하고자 평양을 방문하여 2001 민족통일대추전 행사를 가졌다. 이는 분단 56년 역사상 초유의 일로써 남북 민간교류의 새 장을 열게된 역사적 방문이었다. 반세기 넘게 금지된 북녘 땅을 밟으며 1주일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격의 없이 마음을 나누고, 6.15공동선언의 실천의지를 상호 확인하고, 남북 공동의 사업을 이끌어낸 이번 행사는 현재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보다 굳건히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의 예기치 않은 돌출행동은 21세기 첫째에 열리는 8.15 남북공동행사의 그 역사적 의미와 남북 관계의 엄청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아마도 북녘 땅에 발을 내딛었다는 흥분과 감동, 갑작스런 방북 허가로 미쳐 내부 지휘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3대 헌장기념탑개막식 참관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돌출행동은 각각 다른 사상과 제도 하에서 반세기 이상 살아오다가 만나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고 본다.

그러나 대표단들은 국민들의 비판과 염려를 경허히 받아들여 향후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반성과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일련의 돌출행동이 남북교류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번 돌출행동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돌아온 대다수 방북 대표단 활동의 성과를 반국가적인 것으로 매도하거나 북한에 이용된 것처럼 왜곡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과장,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를 극단의 이념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태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과문을 확대시켜 정치공세로 활용하며 사회를 갈등과 대결적 국민으로 몰고 가는 냉전적 사고와 행동을 중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8.15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 차원에서 여성을 비롯하여

각 부문·계층별로 다양한 교류활동이 전개되었고, 이산가족 교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성과들을 이루고 돌아왔다. 이런 성과들은 외면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그 만큼 멀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처리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거나 민간단체의 통일 노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족의 통일문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전반의 평화능력을 키워가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숙한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관용의 정신을 꽃피워 나갈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그만큼 잘 준비될 것이라 믿는다.

2001년 8월 30일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입장

## "우리 여성들은 테러공격과 보복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테러참사를 보면서 희생자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9월 11일, 미국의 테러참사는 평화를 열망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더구나 참혹한 한국전쟁을 겪고 반세기 이상 분단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로서 우리는 이번 테러행위로 인한 인명의 희생과 재산 피해, 그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의 테러와 폭력, 전쟁도 반대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이 대규모의 희생을 초래하는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테러와 전쟁의 뿌리에는 증오와 원한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따라서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는 한편 증오와 원한을 평화적으로 푸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한 인류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일 또한 저울리 해서는 안 된다. 테러리즘의 근원적 뿌리가 제거되어야 하고, 다양한 갈등이 정의와 신뢰에 기반 한 대화와 이해, 협조, 협상, 중재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미국의 성급한 과잉보복을 우려한다.

미국의 전쟁선포 이후 세계 각국의 양심들은 미국의 성급한 과잉보복을 우려한다. 또한 미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최 신에 무기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테러에 분노하는 아랍인들조차 보복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이는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희생이 예상되는 전쟁수행하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을 확실히 밝히고 이들을 국제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보복전쟁을 통해 전세계가 또다시 군비확장과 군사주의로 나아갈 것을 경계한다.

우리는 미국이 테러대응을 이유로 군비확대의 명분을 확보하고 아프가니스탄 땅

에서 최 신의 무기를 실험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세제가 전쟁참가와 반대로 양분되어 갈등과 상호 파괴로 나아갈 것을 우려한다. 이제 막 시작한 21세기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평온, 평화, 공존의 세제를 물려 줄 것인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전세계와 함께 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방식이 아닌 테러근절 방법을 찾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전쟁지지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테러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외교적 능력 또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우리는 테러근절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임을 주장한다. 또한 국제적인 위기가 고조될수록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여성들은 폭력과 무력이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신념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국내외의 평화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또한 해외 평화단체들과 연대하여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과 미국시민들의 고통에 연대를 표한다.

2001. 9. 18

대한YWCA연합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좋은벗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회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지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환경운동연합

## Women's Position of Demand on War Suspension and Peaceful Resolution

"We, Women are against terrorist attacks and a retaliative war."

We express sincere condolence to the victims of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US.

People in the world are deeply shocked and in the fear by the acts of terror in the US which killed many people on September 11, 2001. The unbelievable acts of terror gave peace loving people great impacts and pains. We, Korean women who have suffered tragedy and pains since the division of Korea and Korean War,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trauma and fear of all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friends and properties in this catastrophe and express sympathy with their pains.

We are strongly against any terror, violence and war.

We, peace loving women, believe that the acts of terror should be eradicated.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e means to eradicate terrors is not violent means including wars which cause another massive victims. We know the cause of terrors and wars is hatred and revenge. Therefore, we should punish terrorists on the one hand and look for peaceful means to resolve hatred and revenge on the other hand. We believe that roots of terrorism should be exterminate and various conflicts through peaceful means such as dialogue, understanding, negotiation and mediation on the base of justice and trust can be resolved.

We are anxious about hasty and excessive retaliation of the United States.

People who support peace and justice around the world are anxious about a hasty and excessive retaliation after George W. Bush declared a war. If the US government attacks the terrorists and other concerned with new high tech weapons including nuclear ones without caution, even Arabic people who condemn the acts of terror in the US will be involved in the war and



continue the violent circle.

The US government should choose not the war where civilians will be sacrificed, but legal ac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We are concerned that the retaliative war of the US will trigger another arms race and militarism.

We are anxious about a possibility that the US uses the war as an excuse to justify military expansion and experiment new high tech weapons in Afghanistan.

We really worry that the world will divide some countries who join the war and others who do not and they will struggle against each other. We stand at the turning point in 21st Century. What will we hand over our descents? We have to decide which lands will be handed over, the ruins of war or the lands where peace, equality and prosperity will stay.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look for some means to eradicate the acts of terror not by military means but by peace means with people,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support peace and justice.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t to support the retaliative war and but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humanitarian aids to the US, but not to take part in military actions. We urge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make efforts unsparingly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We, women who knows about wars, are convinced that violence and military force never guarantees peace. On the belief, we are strongly against any war and demand on peaceful resolution. We make efforts to maintain and make peace in the world with Korean peace, women's, civil organizations and like minded organizations in the world.

We give our sympathy and condolence to the victims and the American citizens again.

Women Making Peace, Korean Church Women United, Goodfriend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kahyup humanright group,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yungki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ngju and Chonnam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Taegu and Kyungbuk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Pusa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Chonbuk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yungnam Women United, Christian Women Minjung Association, Taegu Women's Association, Taejon Women's Association, Pusan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Pusan Women's Social Institute, Korean Catholic Women Association, Aaeucomtuh, Suwon Women's Association, Korean Women's Center For Social Research, Ulsan Women's Association, Korean Women Farmers Association, Cheju Women's Association, Chonbuk Women's Association,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 Daycare Center Teacher's Association,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 Worker Association, Women Link, Korean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n Women Theologian Association, Korean Women's Hot Line,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s United, Taegu Housewives Association For Environment

## 전쟁과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세계가 애도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테러를 전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며 이제야말로 전쟁과 군사적 대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점차 커다란 물결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553개 단체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전 평화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전쟁과 전쟁 지원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결같은 뜻을 모아 미국과 한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 ○ 미국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라

전쟁을 통해서만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테러와 무관한 많은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전 세계에 양자택일 식으로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다시 전쟁과 군사적 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뿐이다. 보복을 위한 무력 행사와 민간인 살상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테러의 주범을 찾아 처벌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외교적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테러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번 사건이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초강경 외교노선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성찰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 진지하고 모색하기보다 세계의 평화를 그 뿌리부터 위협하는 전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평화세력과 힘을 모아 저항할 것이다.

### ○ 김대중 정부는 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전쟁과 더불어 전쟁 지원에도 반대하며,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물자와 자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을 지원하는 대신 테러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테러범 처벌 및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용당히 취해야 할 태도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제무장을 정지한다

일본은 반 테러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활동 범위를 전 아시아로 확대하고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미국이 공언하고 있는 전쟁 및 각국의 전쟁 지원이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아시아 평화에 미칠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쟁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 정부 또한 일본의 제무장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시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큰 물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전쟁을 막고, 새로운 세계를 전쟁과 테러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반전평화의 기운을 일구고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2001년 9월 27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553개 단체 일동

##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문

6천여 무고한 인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지난 9월 11일 테러의 충격과 그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토록 피하고자 한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다. 전 세계 양심적, 진보적 인사 및 단체의 반전평화의 호소가 잇따르고, 테러의 잔해가 쌓인 뉴욕에서까지 수만 명 시민들이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미국이 기어코 아프간 침공을 강행한 것이다.

전쟁이 테러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은 전쟁을 선택했지만,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인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전쟁은 또 다른 테러와 전쟁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테러와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자하는 세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군사지원의 대가로 자국내 아랍계 반란을 눈감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나, 자위대 과방을 추진하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정부는 어리석게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사회적 평등,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세계를 또 다시 폭력과 죽음과 결망으로 얼룩지게 할 이번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실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모든 테러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테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 이웃에게 한 번 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염원을 짓밟는 테러 행위는 그 통기가 어디에 있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는 테러범에 대한 조치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러나 국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은 증거에 기초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 보복을 시작해버렸으며, 전쟁 협력이 아니면 테러 협력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옹호가 아닌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임을 지시해야 한다. 군사 보복은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재연할 것이며, 빈 라덴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미국인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것처럼 또 다른 증오와 테러를 촉발할 뿐이다. 이미 옛 소련의 침공과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은 이번 미국의 침공으로 또 다시 절망의 포면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이번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그렇지 않아도 궁핍에 찌른 제3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든 테러와 전쟁에 강력히 반대한다.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 보복에도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미국이 패권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에서 반미감정을 키워왔으며 결국 테러 집단에게 발미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군사 공격을 가해왔으며,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중동 정책으로 아랍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키워왔다.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과 약소국 민중들을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았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들을 무산시켜 왔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고도의정서와 유연 반인종차별회의 거부, 그리고 미사일방어(MD) 계획 강행 등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인들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패권 추구야말로 세계가 갈등과 대립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만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반성하기보다는 군사 보복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 범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미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평화에 기여하려면 부당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테러와 전쟁에 반대하는 호소는 곧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임을 미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은 물론 전쟁 지원에도 반대한다.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

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전투병력이나 비전투병력이나, 혹은 병력이나 물자와 자금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피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며, 태러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군사 적대를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평화에 반하는 행동이며 우리 국민을 태러와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보복전쟁 지원은 한반도 주변국 사정과 관련해서 볼 때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일본은 지금 이번 전쟁 지원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방조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화를 막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의 전쟁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한층 더 힘을 쏟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전념해야 한다.

전쟁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위험성을 생성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총리의 심상탈태 등으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왔으며, 이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해외 파병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10월 15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총리의 한국 방문도 반태러 전쟁을 위한 아시아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자위대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국 정부는 마땅히 전쟁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자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 이 순간 테러의 참상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 분출되고 있는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물줄기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침략과 학살, 테러와 전쟁으로부터 지켜나갈 희망의 원동력이다.

평화는 그 누구보다 우리 민족에게 생사존망의 문제이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과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물결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며, 아시아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앞장 설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냉전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류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다. 이것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평화 역량을 키우고, 남과 북의 신뢰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새로운 세기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세계 반전평화 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2001년 10월 1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전국 765개 사회단체



## 미국은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내 테러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에 우리는 또다시 경악과 공포를 느낀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 이번 테러 사건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촉구해왔다. 테러는 결코 전쟁과 무력으로서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화해로 해결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의 보복공격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미국 정부는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을 통해서만 테러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전쟁은 무고한 희생자와 더욱 극단적이고 완악한 폭력만을 불러올 뿐이다.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의 명분 아래 시작된 보복공격은 실제국제적 질서에 위배됨을 지시해야 한다. 이번 보복전쟁은 건담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과 반목을 야기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테러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대중 정부는 보복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즉각적인 지지발표를 하고 앞으로 다자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무엇이 평화를 위한 길인가? 김대중 정부는 보복공격에 대한 지원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쟁과 폭력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전투병은 물론이고 비전투병과 물자, 자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지원계획을 철회하라.

유엔과 각국은 여성, 어린이 등 피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세워라

우리는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또 다시 피해자가 된 무고한 아프간의 여성과 어린이들, 학자들에 대해 깊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낀다. 이미 그들의 기나간 피난의 행렬이 시작되었고, 난민의 80%를 차지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공포와 굶주림 속에 방치된채로 있다. 지상군투입의 압박함은 이들에 대한 참혹한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미사일 폭격세계으로 부시대통령이 주장하는 '세계 정의의 수호'가 이뤄질 순 없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아프간 난민의 희생을 줄 일 순 없다.

유엔과 각 국은 무고한 아프간의 여성들과 어린이들, 피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세워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이번 테러사건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을 기회 삼아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지원법을 제정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립하려하고, 다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화를 경계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과 미국의 보복전쟁에의 참가 의사를 당장 철회하고,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반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건대,

우리 여성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테러와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계획이 당장 철회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전세계 방방곳곳에 산적해 있는 최신 강력 살인 무기의 전면적 해체를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여성들은 인간의 생명과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0월 12일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기독교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대구여성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전국여성노동조합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  
회어머니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한  
국여성학자협의회 환경운동연합주부주지킴이 등

<영문성명서>

## USA Stop Your Attacks Immediately!!

We have been deeply shocked and saddened to hear of the sacrifice of many valuable lives in the recent terrorist attacks in the US. However, we were shocked once again by the attacks of revenge by the US on Afghanistan. We have continuously called on the U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terrorist incidents. Terrorism can never be eradicated through war and violence. With the hope of a peaceful resolution and to end of the ugly cycle of war, we called on the US to stop their attacks of revenge immediately with our following demands.

### **The US must stop its attacks immediately**

Terrorism can never be eradicated through war.  
War only leads to the sacrifice of innocent lives and more drastic and cruel violence. The strikes under the premise of 'enduring freedom' by the US government are in clear violation of global peace and order. This war of revenge will only lead to uncontrollable military tension and hostility.  
The US must stop its attacks of revenge immediately and work for the peaceful and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incidents. We call on the US to carry out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and reveal the correct evidence and undertake efforts to eradicate terror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 **The Kim Dae Jung government must cancel plans for war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ealed its support for the US attacks of revenge immediately after the terrorist incidents and intends to carry out diverse war support plans. We would like to ask President Kim Dae Jung as a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basic question of 'What is peace?' The Korean government must stop all plans for the war support and call on the President to carry out effort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War and violence can never be rationalized in any way. The Korean government must cancel all plans for the dispatch of combat and non-combat troops, commodities, financial aid and any other forms of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UN and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must set up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nd safety of refugee women & children**

We are deeply saddened to see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Afghan women and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ized in the US attacks. The refugee lines to escape the attacks have already started and women and children who comprised 80% of the refugees are facing terror and starvation. The impending commitment of ground forces forecasts the terrible sacrifice of women and children. Missile strikes will not 'safeguard world peace' as proclaimed by President Bush. The so-called 'humanitarian aid' will not prevent the human sacrifice of Afghan refugees.

The UN and countries of the world must set up immediat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nd safety of innocent Afghan women and children. Furthermore,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lead the way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terrorist incidents.

### **Japanese Rearmament Endange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he opportunity of the US attacks on Afghanistan to increase its Self Defense Forces and is undertaking legal reform to achieve the right of group defense, dreaming once again of a

military empire. We call for the end of Japanese rearmament which threate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support of its participation in the US attacks of revenge and cancel all plans for the dispatch of its Self Defense Forces. Unless, the Japanese government abandon all desires for a military stronghold, it will be facing strong resistance from the Asian people.

We, once again, put forward our demands:

We are totally against any kind of terror and war.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stop its attacks of revenge on Afghanistan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all plans for supporting the war.

We as women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create a world respecting human life, human rights and peace.

October 12, 2001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기도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

1. 우리는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온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적극 반대한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전범자들이 감들어 있는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오는데 앞장서온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에게 끼친 고통과 역사적 사실을 시인, 기록하고 후 세대들에게 교육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떤 일본총리도 다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한국방을 꺾어서는 안된다.

2. 일본총리는 방한에 앞서靖신대문제해결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일본 국왕의 전범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역사교과서에 기록, 교육하고靖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배상을 시행하지 않는 한, 어떤 일본 총리도 한국 땅을 꺾어서는 안된다.

3.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꿈을 버리고 자위대 해외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을 기회삼아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한다. 10월 5일 국회에 제출한 '테러대응특별조치법'과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인정하는 '자위대법개정안' 등이 그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파키스탄과 인도양에 자위대를 파병, 물자수송 등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하게 되며 정당방어와 난민보호 등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도 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며 자위대의 해외 전투지역 파병의 길을 열어놓고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이런 법안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들을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한국방문은 반테러전쟁을 위한 아시아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자위대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테러사태를 자위대 강화와 군사대국화로 연결시키는 시도들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4. 한국정부는 마땅히 전쟁지원을 철회하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전쟁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일본의 자위대 과병과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입장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등 역사인식 문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과 러시아 측이 남쿠릴 수역내 한국 공치잡이 어선의 조업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아시아 여성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2001년 10월 15일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본의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반성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484차 수요집회 성명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새로운 전쟁참여를 통해 지난 시절의 패배를 보상받고자 획책하는 일본정부의 최근 행보가 명백히 반인륜적이고 물먹사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터무니없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통해 자국민을 우민화하고 미국의 더러운 보복전쟁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 자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려는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되기에도 적합치 않은 미개한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국민을 포함한 모든 미래 인류에게 어리석은 전쟁의 위협을 안겨줄 수 없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일본정부의 잘못된 행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무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 종전 반세기가 넘도록 반성하지 않았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피해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 그들의 지난 시절 범죄가 잊혀지고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지난 전쟁의 패배를 그 원인부터 제거하기보다는 미국의 더러운 보복전쟁에 동참, 군국주의를 부활시킴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경제력의 신장을 자국민의 풍요와 전인류의 행복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무기로 쓰려는 일본정부의 오판은 결국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일본 자신에게 지난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보다 국가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상으로 인해 이미 전쟁피해자에 대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정신대 할머니들은 물론 향후 새로운 전쟁에서의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그 피해는 일본의 침략피해를 당한 나라들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일본인 자신들에게도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일본은 이제 세계인류를 보는 눈까지는 그만두고 자국민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군국주의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난 시기의 침략을 통렬히 반성하고 거듭나야 한다. 일본의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여성들에게 벌인 지난 전쟁에서의 반인륜적 성폭력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인류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이는 일본에게 더 이상 인류 평화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 지난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제 48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일본정부는 지난 시절의 침략행위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전쟁기간 중 비인도적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2. 일본정부는 중군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3. 일본정부는 군국주의 부활음모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중단하고 동아시아 및 인류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라.

2001년 11월 1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제48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모두

..... **보도기사모음**



[illegible]

● 本教材: <http://www.21win.com>

Received 11 June 2007; accepted 12 July 2007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illegible]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온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이,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구조와 조성, 그리고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대사관 가는 2600명의 평화죽지  
평화운동에서 평화운동 평화시위도

2001년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News**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미국주요 도시의 평화죽지 평화시위도



[http://www.oh.../article\\_print.asp?menu=explor&no=50495&rel%5Fno=2001-12-19](http://www.oh.../article_print.asp?menu=explor&no=50495&rel%5Fno=2001-12-19)





통일뒤 동서독 여성  
'여성지위' 불화 깊어져

“新舊媒體融合·創刊” 專欄

[illegible]

최근 3월 4일과 5일 두 차례 진행된 총선에서 그는 과반수의 득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해, 2004년 12월 12일 열린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 12일 열린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 12일 열린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illegible]정연희 [hyeonhi@knu.ac.kr](mailto:hyeonhi@knu.ac.kr) 서울대 교수·대통령

이날의 행한대장은 '홍길동' 1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된 해상 괴물 영화인 '홍길동'과 '전조화'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홍길동'은 1997년 개봉한 이래로 지금까지 흥행에 성공한 10주년을 맞아 이 영화의 흥행과 대중적 사랑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된 것이다.

연 100여명 실업, 30%

10월 10일 “남산차별”

조기 퇴행노년 위험

서로에 대한 신뢰 문형이

제1회 전국남북학생대회

고령·충주·광주·전주·부산·서울

● **지하철 노조들이 노조법 제정으로  
들어 있고 전국적으로 노조가 설립  
가능한지 묻는다는 것인데** 그 조항은  
"노조는 법률로써 지하철 노조법으로  
정하도록 함을 통해"라고 되어있  
는데, 현행에서는 노조법 제정없이 지  
하철 노조가 설립가능해 노조법에서 불  
가능하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지하철  
노조법으로 변경을 하게되면, 법안이 고  
령되어 3개월을 경과한다.

이러한 모습은 남북한 여교사가 이  
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단에 실려있다.  
남북교사에 참가했던 수 많은 '여교사  
여대'에 대한 애정(愛情)의 면모와 남  
북교사 분할(分畛)을 넘어서는 교단(敎壇)의



2009년 12월 22일, 목요일. 1994년 12월 22일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반포5동 1-1, 1994년 12월 22일, 목요일.

이런 이유로, 저자 교섭단이 이념과 이  
념을 뛰어넘어, "자유·인권·평화"로  
부터 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모든  
문제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